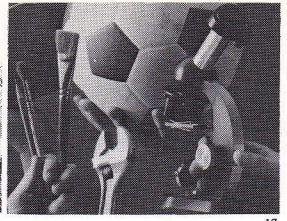


사모아 신전





표지 설명: 앞 표지-사모아 신전, 뒷 표지-통가 신전

# 성도의 빛 9

1984

## 차 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매리은 지 롬니  
고든 비 힝클리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몽기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오코스

교문

엠 러셀 벨라드 이세  
로렌 시 던  
랙스 디 피네카  
찰스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온 세상이 개종될 때”.....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1
고로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로버트 이 웰스 장로.....	7
질의 응답 .....	13
제가	
가르침을 받았읍니다.....조니 허바드.....	15
비교해서 이야기하건데.....애나 베이트먼.....	17
아버지를 찾읍니다.....에이브라함 킴볼.....	22
질의 응답 .....	27
영혼을 위한 투쟁.....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	30
심심풀이(숨어 있는 삼각형) .....	42
두 가지 사이.....베티 로우 멜.....	43
노아와 방주 .....	46
심심풀이 .....	49
지역 성도의 간증.....박 병규 전 부산 선교부장 .....	50
지역 소식 .....	51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년 구독료는 4,0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년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권 : 제229호, 제20권 제9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4년 9월 1일(월간지)  
발행인 : 서 원 편집인 : 김 영 철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와 010041-31-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전 수  
STOCK NO. PBMA0493KO PRINTED IN KOREA 9/84

© 1984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International Magazine

## “온 세상이 개종될 때”



스펜서 더블류 김불 대관장

김불 대관장님의 지시에 의하여 그가 교회 대관장으로서 참석하신 첫번째 대회인 1974년 4월 4일 지역 대표 세미나에서 행하신 이 역사적인 말씀을 가정 및 가족 토론에서 사용하도록 새롭게 축소 편집하여 다시 인쇄하였다.

내 마음의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교성 18 : 15)

만일 개종자가 없다면 교회는 시들어 결국 덩굴에서 죽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선교 사업의 최대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은 계명과 약속과 부름과 복음을 가르친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말씀으로 가

득 차 있습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계명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계명을 회피할 수 없는 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주님께서 열 두 사도를 감람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이나고 묻고 싶습니다.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 : 8)

이 말씀은 그가 하늘의 처소로 올라가기 전에 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땅 끝까지”라는 말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는 이미 사도들에게 그 지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지역은

유대일까요? 아니면 사마리아일까요? 아니면 근동일까요? “땅끝까지”는 과연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현재 미대륙에 거주하고 있는 수백만의 주민들을 의미하셨을까요? 또는 회람과 이대리와 지중해에 연해 있는 나라와 중앙 유럽의 여러 나라의 주민들을 의미할까요? 과연 그는 어떤 곳을 의미하셨을까요? 그는 그 당시 세상에 살았던 모든 주민들과 앞으로 수세기 동안 이 세상에 태어날 영들을 의미했을까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그 의미를 과소 평가하지는 않았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후 열 한 제자는 갈릴리에 있는 어느 산 위에 모였습니다. 그때 구세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는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 : 18-20)

다시 권세와 계명이라는 말을 사용하시고 계속해서 돕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1830년, 주님께서는 팔리 피 프랫과 올리버 카우드리와 피터 휘트머 그리고 지바 피터슨을 레이맨인 가운데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몸소 저들과 함께 가며 그 가운데 있으려니와 나는 아버지께 향한 저들의 변호인이니, 저들을 이길 자는 결단코 없으리라.”(교성 32 : 3)

모세가 본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큰 세상이었읍니다.

“...모세가 보니,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끝과 지음을 받고 있고 또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의 자녀가 있어...”(모세서 1 : 8)

나는 주님께서 그 당시의 인간의 주거지의 끝과 그들이 거주할 지역과 이 세상을 소유하게 될 자들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읍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사업과 영광의 장엄함을 보이시고 또한 더 많은 것을 보여 주셨읍니다.

“...모세가 눈을 둘러 세상 곧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보매, 보지 못한 것이 세상의 티끌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의 영으로써 이를 분별하였더라.

“...저들의 수는 많았으니 바닷가의 모래같이 무수하더라.

“또 저는 많은 땅을 보았나니, 그 하나 하나를 육지라 하였고 그 지면에는 주민이 있더라.”(모세서 1 : 27-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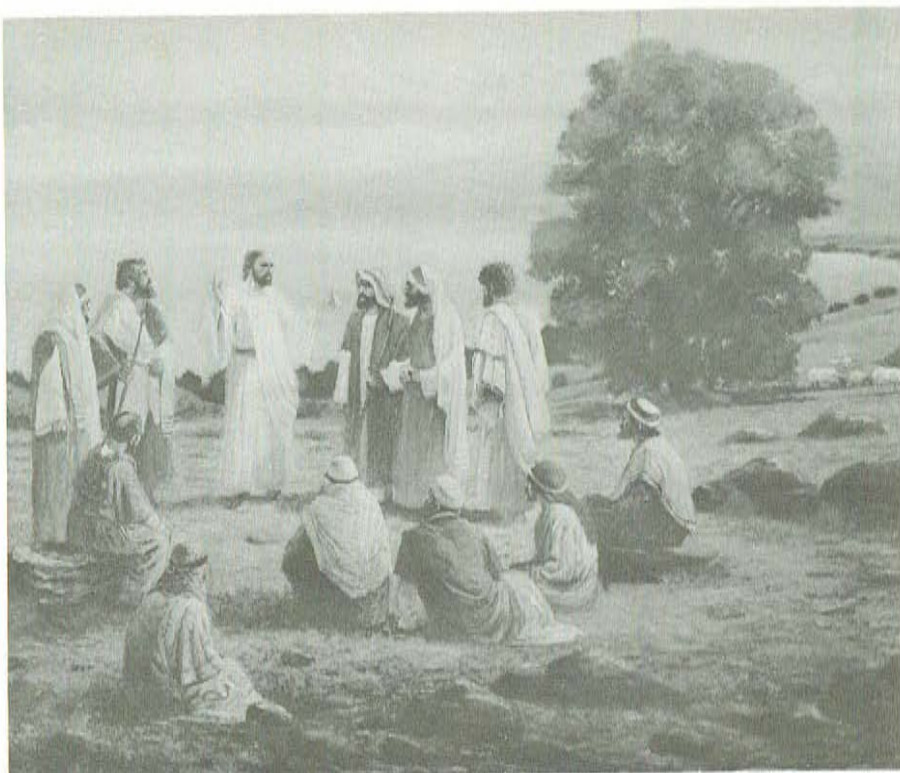
또한 예언자 예녹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들을 보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서 6 : 36 참조) 이러한 예언자들은 무수한 영과 모든 창조물을 보았읍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족속” “온 땅” “세상의 모든 구석” “모든 방언” “모든 백성” “모든 영혼” “온 세상” “많은 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에는 틀림없이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양은 그분의 주변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과 매일 그분과 접하는 사람에게 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천 우주를 포함하는 가족! 우주를 다스리는 명명!

형제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지 묻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마 28 : 19)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르치는 방법이 만족스러운 것입니까? 우리는 걸음의 폭을 넓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시야를 넓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그분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제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천 번이나 인용한 니파이의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 니파이는 부친께 이르기를, 주님께서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

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 하였더라.”(니일 3 : 7)

나는 경전을 읽으면서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없었던 수많은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할 때 주님께서 문을 열 방법을 찾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입니다.

“자신이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을 듣고 사라가 웃었을 때 그는 이렇게 불었습니

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가 장막 문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 자신은 90세였으므로 생산할 나이가 지났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잉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나라의 문을 열 수 없다고 알고 있는 것처럼 사라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창 18 : 13-14)

형제 여러분, 사라는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히 11 : 12)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읍니까?

또한 그는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렘 32 : 27)

그가 명하신 일이면 그는 분명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넌던 이 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레스가 강물의 흐름을 바꾸고 요새 바빌론성을 탈취한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하이인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였으며, 독립 전쟁과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준 하나님의 권세를 기억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행하기로 작정하신 일은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우리가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여시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약 26,000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선교사를, 훨씬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젊은이와 훨씬 더 많은 성숙한 부부가 필요합니다.

내가 더 많은 선교사를 원할 때 이 세상의 각 지부나 와드에서 보다 훌륭한 선교사를 보다 일찍 훈련시키기 시작할 것을 바랍니다. 즉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위대한 특권으로 알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며 "주는 작은 죄도 허용하지 아니하심"(엡 45 : 16)을 알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나는 교회의 가족과 조직을 통하여 세밀하게 가르침을 받고 훈련되어 커다란 열의를 갖고 선교사가 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선교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예비 선교사를 보다 훌륭하게, 보다 일찌기, 보다 오랫동안 훈련시켜서 그들 모두가 큰 기쁨으로 자신의 선교 사업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젊은이들은 선교 사업을 마쳐야 할까요? 주께서는 이 질문에 "그러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능력있는 젊은이는 선교 사업을 마쳐야 합니다.

모든 젊은이들은 십일조를 바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임에 참석해야 하며 신전에서 결혼해야 하며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시켜야 하며 많은 훌륭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

니다.

우리는 모든 능력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일을 행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외국에 복음을 전하러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능력있고 합당한 사람은 모두 십자가를 어깨에 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박혔음을 가르쳐야 할 무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선교 사업을 위한 기금을 저축하며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겠다는 마음 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각 사람은—(여러분은 각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를 손에 들고 충실로 허리를 동여매고 땅의 주민에게 경고의 음성을 높일지어다. 또 말하거나 도망함으로써 악인에게 황폐가 임할 것을 선포할지어다.”(교성 63 : 37)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모든 영혼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 줄 수 있는 복음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다시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권세나 지배가 아니며 전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문을 여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이 올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며 그 책임 중 자신의 몫을 받아들인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발명품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다 주거나 또는 감의 방향을 전환시키거나 바다를 열거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문을 열어 줄 것이며 전도를 가능하게 해주실 것



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하여 참으로 강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악한 자가 결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완전히 좌절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이 왕국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발전되며 더욱 더 번성케 될 것입니다. 원수가 이 왕국을 전복시키려고 할 때마다, 더욱 그 범위가 넓어지고 강대해질 것이며 움츠러 드는 대신 오히려 날로 증가될 것이며 보다 널리 퍼지며 모든 백성에게 더욱 훌륭하게 눈에 띄게 될 것이며, 온 땅이 파 찬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예언자, 브리감 영, 1852년 4월 대회)  
여러분은 1842년 3월 1일에 쫓겨난 웨트위스 서한집에 수록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교회 정사, 제 4 권, 536페이지) 예언자 요셉이 국가적인 반목과 전쟁에 대한 공

포와 소동과 질시의 많은 문제를 미리 보았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그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한 대담성과 확신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록하지 못한 손이 이 사업의 진행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박해가 일어나고 폭도들이 규합하고, 군대가 조직되고, 중상 모라미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담대하게, 고고하게, 독자적으로 나아가서 모든 대륙으로 들어갈 것이며,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 온 나라를 휩쓸 것이며 모든 사람의 귀에 들릴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은 완성될 것이며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그 일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50억에 달하고 있는 세계의 인구를 생각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사업의 막중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 사업이 힘들지 않고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며, 하루 저녁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망상에 걸려 있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들이 앞으로 전진하며 현재 우리가 행하고 있는 속도보다 더 빨리 확장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는 일본과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훌륭한 젊은이들이 교회에 참석하며 각 조직에서 지도자로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곳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준비시켜 외국으로 파견할 수 있게 될 위대한 장래를 그려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멕시코에 갔을 때도 역시 그곳에서 멕시코 청년들과 중남미의 라틴 민족의 청년들을 보고 앞으로 선교사가 많이 배출되어 자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 파견

될 수 있다는 전망을 그려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주님의 선교사들은 물이 깊은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이 지상을 덮을 것입니다.

나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나는 목표 달성을 위한 해결책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우리가 모두 한마음 한뜻과 한 목적으로 뭉친다면 굉장한 힘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 설정하신 “모든 회원은 선교사다”라는 이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영감에 찬 이상입니다.

나는 이 메시지가 새로운 것도 아니며 우리가 이전에 이것에 관하여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무장해야 할 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신을 돌리고 목표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큰 책임을 수행할 때 주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선교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게 복음을 받을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2.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아직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복음을 가르칠 기회 of 문을 여시도록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3. 부모는 자녀를 좀더 철저히 선교 사업에 대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4. 우리 앞의 선교 사업은 너무 엄청나게 보일 수 있으나 우리가 신앙을 갖고 계속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 고로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로버트 이 왈츠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좇아 충실하게 생활해 온 교회 회원들에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놀랄 것입니다. “물론”이라는 별명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사이에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현재 미국내에는 대중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우리 말일성도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설득시키려고 조직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사람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어디서나 어느 모양으로나 혹은 무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이 허용됨”(신앙개조, 11조)을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자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최상의 상태에 거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엇이든지 자기들에게 기록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예배할 권리를 존중하며 또한 그들도 우리에게 똑같은 특권을 허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이유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며 이는 논쟁의 소재로 삼기 위함이 아니고 단지 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대접받기에 충분하고도 남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1. 우리는 기독교의 신회, 기독교의 삼위를 예배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신앙개조, 제1조) 우리는 우리 앞에 다른 신을 모시지 않습니다. (출 20:3 참조) 우리는 현대나 고대의 예언자와 성도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가르치신 대로(마 6:9-13)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하며 그것도 구세주의 이름

으로만 행합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가르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른 중보자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이 구원받을 이름이 하늘 아래 다시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니이 25:20)

2. 우리는 초대 기독교인과 마찬가지로 새긴 상이나 기타 우상 숭배의 대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입니다. (출 20:4-6 참조) 또한 우리는 어떤 장치나 고대 유물이나 화상이나 십자가, 기타 인간이 만든 물건을 참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공원과 전물을 조각품으로 장식하고 구세주와 기타 저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그림을 걸어 놓지만 인간이 만든 그런 것에 부당하게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3. 우리는 초대 기독교인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때문에(출 20:7 참조) 기독교인입니다. 또한 우리는 신을 일컫는 어떤 말도 잘못 사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거래할 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구세주의 훈계를 따릅니다.(마 5:34-37.)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적인 일과 행위에 있어서 거룩한 것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 대화할 때 단순하고 정직하고 곧바르게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저속하고 추한 말을 사용하는 것을 피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표현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우리는 기독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 기독교인입니다.(출 20:8-11 참조) 그리고 우리는 다만 교회에

서 잠시 동안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스포츠, 공공 여흥, 사냥, 낚시, 일, 기타 활동으로 주님의 날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반대합니다. 일요일은 예배의 날이요, 휴식의 날이요, 연구의 날이요, 병자를 방문할 기회이며, 주중에 할 수 있는 일상의 일을 안식일에 하면 안됩니다. 또한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거래 협상을 하거나 기타 상업 거래에 참여하는 날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5. 우리는 기독교 방식으로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 조부모 및 모든 조상을 공경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입니다.(출 20:12 참조) 우리는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또한 조상에게),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려고 노력하며(말 4:6 참조) 이것은 모든 세대를 영원한 사랑의 유대 가운데 결속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전에서 영원한 결혼을 목표로 추구합니다. 우리의 신전 의식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정과 가족과 각 개인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가족을 사탄의 영향권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낙태, 동성애, 혼음, 술, 마약, 폭력, 부당한 이혼 등 가정과 가족을 파괴하는 것에 대적합니다. 사실상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다”고 가르친 분은 말일의 기독교 예언자인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었습니다.

6. 우리는 “살인하지 말찌니라”(출 20:13)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더 높은 율법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며  
 그가 고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신 확신합니다.

되고”(마 5:22) 그리스도는 분노, 논쟁, 분쟁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훈계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뺨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마 5:44-45) 이 훈계에 있어서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살에 반대하며 산모에게 위험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있을 때와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은 제외하고는 낙태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 술, 기타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자극제로 자신에게 가하는 “서서히 죽는 것”에 대하여서도 반대합니다.

7. 우리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계명인 간음하지 말찌니라(출 20:15; 교성 42:20)는 계명에 순종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더 높은 율법에도 순종합니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28)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인은 자기 생각을 다스리며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상스런 것에 일체 탐닉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혼전 정사, 페팅 및 합당하지 못한 데이트 등을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우리는 양자가 모두 완전하고 순수한 가운데 결혼 제단에 나와야 하며 그런 덕성과 순결과 충실함이 영원히 계속될 굳건한 결혼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8. 우리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계명인 도적질하지 말찌니라(출 20:15; 교성 42:20)는 계명에 열심히 순종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정직, 인격, 합당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말한 예언자 말라기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말 3:8-12 참조) 우리는 수백만 성도가 십일조의 원리를 믿고 행하며 또한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자신의 지혜와 재산만으로 안전을 도모하려는 모험을 하는 것보다는 수입의 90퍼센트에 주님의 축복을 더 입어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간증합니다.

9. 우리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계명인 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에 열심히 순종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입니다. (출 20:16 참조) 우리는 이 계명에 항상 참된 증언을 할 기독교인으로서의 책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빛과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며(교성 93:36 참조)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 정도에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능한 한 자주 전하는 참된 증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삼일만에 살아나셨으며 그의 이름을 지닌 이 교회의 머리로서 살아 계시고 서 계신다는 사실일 것입

니다. 우리는 참된 증인으로서 그의 충만한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이 간증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교 사업은 우리가 기쁘게 참여하는 기독교 전통입니다.

10. 우리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제명인 “탐내지 말찌니라”(출 20 : 17)는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이 제명에 기독교 예언자들의 현명한 훈계를 덧붙입니다. 그 훈계는 우리가 자립하고 비상시에 대비하며 궁핍한 사람을 기꺼이 도우며 교회가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헌물을 후하게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할 때 탐내지도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탐내게 하지도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1. 우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고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지 아니함을 믿”(신앙개조, 제2조)기 때문에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일에 따라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 20 : 12 참조) 우리는 구세주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 7 : 21)를 기쁘게 생각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독교 원리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선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12.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신앙개조, 제3조)기 때문에 기독교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13. 우리는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와



의식은 제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제이, 회개, 제삼,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제사,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임을 믿”(신앙개조, 제4조)기 때문에 기독교인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14. 우리는 원래 교회에서 확립한 기독교 평신도 성역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과 권능있는 자의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을 믿는다.”(신앙개조, 제5조) 우리는 성역에 대한 부름은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는 것이며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한다고 믿습니다. (히 5 : 4)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인간이 주님의 성역을 하도록 자신에게 부름을 줄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15. 우리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조직 즉 사도, 예언자, 감독, 교사, 축복사 등이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입니다. (신앙개조, 제6조) 또한 신약에서 말한 집사, 감독, 대제사 등 다른 모든 직분도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가 초기 교회와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엡 2:20) 그리고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내에서 또한 이 교회에서만 이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16. 우리는 초기 기독교 교회에 존재했던 것과 똑같은 영적 은사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입니다. 즉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계시와 시현을 받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및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 등”입니다. (신앙개조, 제7조)

17. 우리는 “성경(구약과 신약)이 정확하게 번역된 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또한 물문경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입니다. (신앙개조, 제8조) 구대륙에서 기독교 예언자들이 성경을 쓴 것처럼 신대륙에서도 기독교 예언자들이 물문경을 썼습니다. 물문경은 기독교 경전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 증거로서 구세주에 대하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내용은 어떤 면에서도 성경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18.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도 하늘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웅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입니다. (신앙개조, 제9조) 우리는 기독교 예언자들과 “지난날에서처럼 오늘날도……장차도” (니일 10:19) 계시가 계속된다는 원리

를 믿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며 그가 고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19.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믿으며 그가 “친히 지상을 다스리시고 땅은 새로와져서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입니다. (신앙개조, 제10조)

20. 우리는 기독교 생활의 모든 이상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 선행을 믿는다……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 (신앙개조, 제13조) 우리는 팔복과 산상 수훈과 구세주의 모든 가르침에서 예시되어 있는 모든 기독교인다운 미덕을 받아들이며 열심히 거기에 맞추어 생활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며, 신앙, 자비, 사랑, 덕, 지식, 절제, 인내, 형제애, 경건, 겸손, 근면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요약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며……굳건히 그리스도를 바라 행하며……그리스도 안에서……산 바 되고……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며……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바라며……그리스도를 믿음의 바른 길이요……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기록하신 이라……그리스도 앞에 고개 숙여……정성과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그를 예배”합니다. (니이 25:24-29) \*

## 질의 응답

다음 대답은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고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질문: 물몬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주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벌써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알고 있었습니까?

대답: 스티븐 디 렉스, 브리감 영 대학교 히브리어 및 유대 언어 조교수

주님이 육신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물몬경에 여러 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또한 줄여서 그리스도 또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구세주께서 주전 약 2200년에 물몬경의 가장 최초의 예언자인 야렛 형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나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예비된 자라.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이더 3:14).

아마 니파이는 두 낫쇠판(그가 이용할 수 있었던 경전)과 개인적인 계시로부터 구세주의 이름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 선지자와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시되,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요”(니이

25:19) 그 이외에도 야곱, 베냐민왕, 엘마, 힐라멘 등 그리스도 탄생 이전에 살았던 그 이후의 물몬경 예언자들도 주님의 이름을 알고 사용했습니다.(야곱 1:6; 4:4; 모사 3:5-11; 엘 5:44; 힐 5:12 참조).

우리는 값진 진주에서 구약의 초기 선지자들도 많은 사람이 구세주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담은 “나의 독생자의 이름……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모세 6:52) 칭례받아야 한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에녹은 “독생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모세 7:50) 기도했습니다. 노아는 설교하는 가운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믿고 죄를 회개하여……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례를 받으라.”(모세 8:24).

비록 구세주의 생애, 사명, 고난, 사명이 구약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눅 24:44) 예언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의하여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물몬경에는 언급되어 있지만 구약에 나오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전서의 언어인 희랍어로 된 구세주의 이름을 영어로, 영어에서 다시 우리 국어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낫쇠판은 분명히 이집트어로 기록되어 있었으며(모사이야 1:3-4,

성경과 물문경은  
서로 보충하고  
확인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서  
함께 서 있습니다.

니파이일서 1:2-3; 3:19), 니파이의 큰 판과 작은 판은 히브리어로(물문서 9:33), 물문과 모로나이가 간주된 기록은 “개정된 애굽어”(물문서 9:32)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세주의 회람어 이름은 그러한 기록이 히브리어로 근간을 이룬 “개정된 애굽어”로 주로 기록된 바, 요셉 스미스가 물문경을 번역한 기록에 나타나 있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언자가 고대 기록에서 번역한 말에 가장 가까운 이름으로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 기록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예언자는 자신과 다른 기록교인들이 잘 아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고대 족장들의 기록에서 회람어로 된 구세주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요셉 스미스 영감역은 선지자들이 히브리어로 이 이름을 실제로 사용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로 구세주와 관련되지는 않더라도 구약에서 자주 나옵니다.(예, 출 17:9; 대상 24:11; 스 2:40 참조), 영어의 조슈아와 제슈아는 히브리어 여호수아 및 예수아를 일컫는 이름입니다. 예수는 회람어의 예수아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메시아라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도 히브리어 경전에 나옵니다.

“기름부음 받은”이라는 의미로 회람어에서 크리스토스로 번역된 메시아는 구약전서에서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을 일컬어 자주 사용됩니다.(메시아가 “기름부음을 받은”으로 번역된 에로써 레위기 4:3,5,16절을 참조한다.) 또한 사울과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왕을 일컫어 사용됩니다.(삼상 24:6; 26:9,11,16,23; 삼하 19:21; 23:1 참조). 이 이름은 또한 예언의 성취로 오게 될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을 구체적으로 일컬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이 다니엘의 시현에 관한 흠정역 성서에서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라는 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단 9:25 참조).

니파이는 늦쇠판을 연구하고 아마도 “여러 선지자의 말씀”(니이 25:19)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았을 것이므로 구세주의 이름이 아마도 애굽어로 번역된 메시아 예수에 해당되는 이름으로 늦쇠판에 나왔을 것입니다. 이 판에는 우리의 구약전서에 나오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의 창조와…아담과 이브에 관한 기사…모세 오경……태초로부터 유대 왕 시드기아 통치 초까지의 유대인의 기록”(니일 5:11-12)

예언에서 구세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등과 같이 늦쇠판에서 발견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왜 현재의 구약전서 기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원래 선지자들의 기록에는 주님의 이름이 나왔지만 “간결하고 진귀한 많은 부분” 가운데 하나가 그 책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니일 13:28 참조). 천사가 니파이에게 예언



한 것처럼 늦쇠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물문경이 “그곳에서(유대인의 기록) 떨어져 나간 간절하고 진귀한 부분을 알려 줄 것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이시요, 세상의 구세주이시라, 만백성이 그 앞에 이르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든 족속과 방언의 민족과 백성들에게 알려 주시리라.”(니일 13:40).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든 안 나오든 여전히 구약전서는 그분에 대한 중요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상고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요 5:39.) 드문 예를 제외하고는 신약 전서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전서를 말합니다. (예, 눅 24:44-45 참조). 이런 성구는 예수에게서 그 의미를 찾고 성취됩니다. (눅 4:21 참조). 그는 승리의 인자였으며(단 7:13-14과 막 13:26 비교) 다윗의 아들이고 상속자였으며(막 12:35-37, 15:2 참조) 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히 4:14 참조).

그러므로 성경(신약과 구약 모두)과 물문경은 주님에 대한 간증에 있어서 서로 보충하고 보강하고 분명히 밝혀 주고 확인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서 함께 서 있습니다. \*

## 제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조니스 허마드

저는 선교사로서 점심 시간 중의 복음 학습 시간에 네번째 토론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세주의 사명에 관하여 우리가 구도자에게 묻는 질문을 마음 속으로 복습했습니다. 갑자기 그 조용한 순간에 역할이 바뀌는 것 같았으며 제가 교사가 아니라 배우는 사람의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 경험은 저를 압도시켰습니다. 구세주의 대속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느껴졌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의 희생의 고뇌를 알았으며 그의 사랑이 저를 휩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생에서 결코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 순간의 힘이 늘 저를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은사, 생명의 은사의 상징인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경외심으로 가득차게 됩니다. \*

# 비교해서 이야기하건데

애나 베이트먼

개인적인 발전을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 이웃의 표준자대신  
자기 자신의 표준자를 사용함.

매리 앤이 친구에게 이렇게 실토했

다.  
“어제 아침 방문 교육을 떠날 때는 굉장히 좋았으나 집에 올 때는 낙담했어요. 앤드리아 자매 집은 너무 깨끗해요. 그 집 아이들은 너무나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정말갈지가 않아요. 앤드리아 자매는 3년 후까지의 아이들 생일 파티를 이미 다 계획해 놓았다고 했어요. 나는 집에 와서 더러운 아침 식사를 한 그릇과 어지러진 이불을 보고 너무나 모자라는 것같이 느껴져서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나서는 한 시간이나 울었어요. 저는 지금 앤드리아 자매가 다른 집의 방문 교사로 지명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자매가 우리 집 방문 교사가 되면 감당할 수 없을거예요.”

집은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다. “재슨 일가가 새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3년만에 두번째로 새 차를 샀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내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돈버는 방법을 틀림없이 알고 있을거요. 그를 생각하면 나는 패배자같이 생각되요. 우리는 8년 동안이나 새 차를 산 적이 없었요.”

미셸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시누이는 멋진 기억의 책을 갖고 있어요. 미술에 굉장한 소질이 있어서 그녀의 손질만 당으면 무엇이든 재능

이 나타난답니다. 그녀의 기억의 책을 보고 제 것을 던져 버렸으며 두 번 다시 그것을 안 보기로 맹세했어요.” 불행히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부족하고 낙담이 되고 심지어 질투심까지 느끼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렇더라도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우리는 비교하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너무 많다. 사람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태도로 임합니다. “나에게 뭐가 잘못되었는지? 왜 나는 저렇게 되지 못하나?” “그는 너무 운이 좋아. 이 건 공평하지 못해.” 심지어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같이 보이기 때문에 자신이 더 많이 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죄의식까지 느낄 수 있다. 때때로 우리는 “시도한들 빗하겠어?”라는 태도를 갖게 된다. “나는 결코 저렇게 잘할 수 없을거야. 그러니 시도한들 빗하겠어?” 식의 태도이다.

또한 세상에는 우리를 위로해 주려고 그 유명한 “비기는 게임”을 하는 친구들과 친척들이 있다. 그들은 “그래, 그렇지만……”이라고 말한다.

“그래, 그렇지만 앤드리아 자매에게는 아이가 셋밖에 없고 너는 4명이 있으며 나이 차이도 별로 없기 때문에 서로 잘 관리할 수가 없잖아.” 매리 앤의 친구는



그녀를 위로해 주려고 이렇게 말한다. 그뿐 아니라 아마 앤드리아 자매는 네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거야.”

짐의 아내는 이렇게 말한다. “그렇지만 당신은 교회 봉사에 시간을 더 많이 쓰잖아요. 돈버는 데 집중할 시간이 없을 따름이죠.”

“그래, 그렇지만 너는 음식과 바느질을 잘하며 다른 재능도 많지 않니”라고 미셸의 친구가 이야기한다.

또한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려 할 때도 흔히 있다. “그래, 그렇지만 나는 식구가 더 많기 때문에 더 쉽게 좌절하는걸, 뭐.”

“그래, 앤드리아 자매가 가사에 그렇게 재능이 많은 것은 정말 훌륭해.” “그래, 그는 정말 돈버는 데 천재야.” “그래, 그 자매는 정말 멋있게 해내.”라는 말을 별로 듣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른다.

다른 사람의 모든 긍정적인 것을 “보상”하려고 그들의 결점을 찾아 내려 할 때 이러한 비기려고 하는 것에 큰 위험이 따른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 페기 퍼팩트는 정말 많은 것을 성취해. 아름답고 멋있고 재능이 있어. 그렇지만 훌륭한 어머니가 못되는 것이 틀림없어.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음에 틀림없어.” 때때로 우리는 그 “완전한” 사람의 결점을 발견하게 되면 너무나 신이 나서 즉시 그 말을 퍼뜨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흔히 위로하려고 서로 나누는 말 가운데는 전혀 근거가 없는 말들도 많이 있게 마련이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른 것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집에서 살고 있고 배경이 다르며 가족 상황도 다르다. 겉으로 비슷하게 보이는 상황까지도 대체로 서로 다르

다. 노마는 자신이 계획성있게 물건을 잘 사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나 이웃에 사는 앤이 비슷한 연령의 아이들 숫자까지 거의 같은데 매달 음식에 드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놀람게도 자기 집 식대보다 훨씬 적었다. 노마는 즉시 우리 대부분이 그러는 것처럼 자신에게 결함이 있다고 생각했다. 곧 자신이 어떤 것을 잘못하고 있는지 또한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알아내려고 애썼다. 어디에서 더 경제적으로 돈을 써야 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줄일 수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마침내 노마는 자세히 분석한 결과 자신이 있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고 웃었다. 해답은 간단했다. 앤의 남편은 직업상 늘 여행을 했으며 주중에 집에서 식사하는 일이 없었다. 노마와의 차이는 단지 상황이 다를 뿐인데 괜히 자신에게 너무 심하게 대하였다는 것을 인식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최상의 상태에 있고 자신은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빌은 맥스테드의 집에 들렀다가 그가 정비공 작업복을 입고 온통 기름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4살된 맥스테드의 아이가 울고 있었고 십대의 아이는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 놓고 있었다. 집은 약간 어지러져 있었고 맥스테드 자매는 머리에 파마 세트를 쫓고 있었다.

빌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가운데 비교에 관하여 중요한 교훈을 받았다.

“나는 교회에서만 맥스테드 형제를 보았어. 그가 언제나 빈틈없이 옷을 잘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활은 완전히 통제되고 있으며 인간적인 문제는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거야. 그가 집에 있을 때의 모습을 보니 좀 위로가 되는군.

나는 지금도 그를 굉장히 존경해. 정말로 그에 대한 존경심은 조금도 줄지 않았어.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더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좋아. 그런데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성공과 훌륭한 속성을 인식하기가 훨씬 더 쉽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은 모두 땅속에 깊이 묻혀 있어서 그것을 파내려면 지구 저쪽까지 파 내려가야 될거야.”라고 오드리가 친구인 린다에게 불평했다. 린다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농담하니? 너는 타고난 지도자야. 너는 다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어. 너는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좋게 생각하게 되고 죄의식을 갖지 않게 해주고 있어. 만일 그것이 재능이 아니라면 뭐가 재능인지 모르겠다.”

악마는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고 갖고 있는 것보다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않는 것에 집중하게 할 때 그의 일을 가장 잘 수행하는 것 같다. 우리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특별한 은사와 축복이 있다. 문제는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서로 위로하려고 흔히 언급하는 것이 사실일 때도 많이 있으나 우리가 “저울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등한시하거나 배척하기까지 하는 중요한 여러 가지 점이 더 많은 것이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기 위하여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경쟁이란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져야 하는 게임이나 운동 경기에 있어서 재미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생에서는 모든 사람이 승자가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의 “승리”가 곧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의 “패배”를 가

져 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되거나 앞서기 위하여 자신의 진보를 측정하거나 거기에 가치를 둔다면 마치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이 모두 더 훌륭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자신의 예술을 포기한 소질있는 젊은 작가와 같이 될 것이다. 만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취했다면 위대한 문학, 미술, 음악, 작품이 창조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자신의 가치와 발전을 측정하는 일을 가장 잘 도와 주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신다. 신전에 참석하고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며 축복문과 진실된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음성에 귀기울일 때 자신을 순수하고 신성하게 인식할 수 있다. 재니스는 스스로 자신에게 부여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부여했다고 생각하는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고 좌절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감에 따라 저의 기대가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또한 다른 사람이 뛰어나게 잘하는 모든 분야와 재능에 있어서 완벽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감에 따라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분의 딸로서 나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쟁해야 할 유일한 상대는 자기 자신이다. 왜 우리의 재능과 특성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하는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길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개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중단할 때 정말

로 우리의 발전을 증진시킬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낙심하지 않을 것이며 좀더 생산적일 수 있다. 우리는 어제, 지난 주, 지난달, 지난해의 자신보다 더 나아지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

멜라니는 이런 중요한 점을 배웠다. “저는 자라면서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 그림, 창작, 스케치까지 잘하는 언니를 늘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늘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즉 언니가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생각해 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언니가 너무나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해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결혼하고 두 아이가 생겼을 때 저의 재능이 부족한 것에 대한 감정과 실망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늘 피아노를 치고 싶었으나 언니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레슨을 받고 싶어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언니가 피아노를 잘 치는 것이 왜 문제가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란? 피아노를 치고 싶으면 단지 내가 배우고 싶기 때문에 가서 피아노를 쳐야 해.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언니가 어려운 클래식 곡을 연습하는데 저는 간단한 음정을 연습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곧 음악에 대한 기쁨이 그런 감정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아마 저는 언니만큼은 피아노를 치지 못하고 앞으로도 못할지 모르지만 매일 저의 음악에서 성취하는 것을 알게 됨에 따라 점점 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침내 다른 사람의 성취로 인하여 저 자신의 발전을 지연시키지 않게 된 것이 정말 기쁩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과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위에 더 쌓았으므로 모두 칭찬을 받았다. 꾸중을 들은 종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그대로 가져 온 사람이었다. (마 25 : 14-30 참조).

다른 사람의 생활에서의 성공과 훌륭한 자질을 인식하는 태도를 배움에 따라 우리의 생활도 풍요해질 수 있다. 과거에 살았던 위대한 예술가, 작가, 과학자, 음악가, 철학자 및 인류에게 유익한 사람들을 우리 생활에 적극적인 공헌을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평범한”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 그들의 재능과 기술이 우리를 도우며 그들의 선한 온사가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우리가 오직 자기 자신과 경쟁하는 것을 배울 때 다른 사람의 달성과 특성을 좀더 높이, 좀더 기뻐 교인답게 인식할 수 있다. 우리가 자기 인생을 살아감에 따라 부정적인 느낌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뛰어난 사람이 누구이든 우리는 그 뛰어난 점을 기뻐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것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발전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캐롤린은 미술 전시회에 가서 친구가 만든 작품을 보고 질투심이 생겼다. 그 순간 캐롤린은 이런 생각을 했다. “왜 내가 이런 감정을 가져야 하지? 리네트가 보여 줄 수 있는 이런 재능이 있는 것이 나에게 다행이야. 또한 그가 재능을 표현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야 해.”

함께 노력하고 서로 승화시켜 주고 격려해 줌으로써 발전을 향한 모든 사람의 길이 더 쉽고 더 기뻐진다. 비록 우리가

서로 다른 길로 여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각자 자기 길을 가는 다른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 편이 되고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성공하기를 원할 때 그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우리의 길에 대한 시아가 더욱 분명해진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자신을 잃는 것이 자신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봉사할 때, 그들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보다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면, 자신의 문제에만 골몰할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최대의 봉사가 이루어졌던 절정의 시대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마 10 : 39 참조).

“우리는 생의 지침이 되는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합당한 방법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 발전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보다 가치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더욱 더 자립하게 됩니다. 자신에 관하여 발견할 것이 더 많이 있으므로 참으로 자신을 ‘찾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작은 봉사 행위” 성도의 빛, 1976년 12월호, 1페이지).

가르치는 데 있어서 뛰어난 재능을 갖고 태어났으나는 질문을 받고 짐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으며 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그만 두고 어떻게 반원을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하여, 또한 그들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격려하고 동기를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시작하기 전에는 더 나은 교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짐은 자신을 잃음에 따라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또한 최근에 어떤 상호부조회 자매가 첫 공과를, 특히 감동적인 공과를 한 다음 두 자매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승화되었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너는 할 수가 없다고 말했잖아. 나는 그보다 더 영감에 찬 공과에 참여해 본 적이 없었어.”

그러자 그 첫번째 자매가 이렇게 말했다. “네 얼굴에서 그렇게 격려의 빛을 나에게 비쳐 주는데 어떻게 잘하지 않을 수 있겠니. 고마워, 네가 바로 기도의 응답이었던거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보다 더 큰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고 격려하고 그들의 발전을 기뻐할 때 자신이 성취하고 발전하기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기쁨과 성공을 찾도록 도와 주려 하신 구세주를 닮게 될 것이다. 또한 구세주께서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우리를 도우시는 동안 그의 높으신 잠재 능력을 향하여 발전하고 계셨다.(교성 93 : 12-14) \*

4자녀의 어머니인 애나 베이트먼은 솔트레이크시티 와드 주일학교 교사이다.

# 아버지를 찾음

에이브라함 킴블

편집자 주: 이 경륜의 시대의 첫 사도 중 한 분이신 히버 시 킴블의 아들 에이브라함 킴블은 아버지와 떨어져서 교회를 적대시하는 친척 집에서 자랐다.

다음 이야기는 교회 통굴 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에이브라함 자신의 기록에 의한 것이다.

우리가 아이다호주 포트 홀 로드에도 착했을 때 나와 함께 캘리포니아로 여행하던 제임스 스파이서는 여러 역마차 수송대가 인디언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계획을 바꿔 유타주를 통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나는 당연히 물몬들이 나를 죽이거나 더 악한 일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게 “저는 용감하게 죽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때까지 우리 대원들은 내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다. 나는 스파이서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유타주에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때?”

“잘 모릅니다.”라고 나는 대답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아버지를 잘 몰랐으나 거기에 가면 문제가 생기기라고 알고 있었다.

“아마 그들이 나를 감옥에 넣을거예요.”라고 나는 말했다.

“우리는 포트 홀 로드를 택할 수는 없어. 너무 위험해. 우리는 유타주를 통과해야 해.”라고 그는 대답했다.

그리고 웃으면서 “넌 아무 일 없을거야.”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마차로 올라가서 말을 몰아 유타주를 향하여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것은 악몽이었다. 나 혼자 돌아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멀리 와 있었다. 평생 동안 가장 무서워했던 일이 사실로 타치고 있었다. 나는 물몬에 대하여 굉장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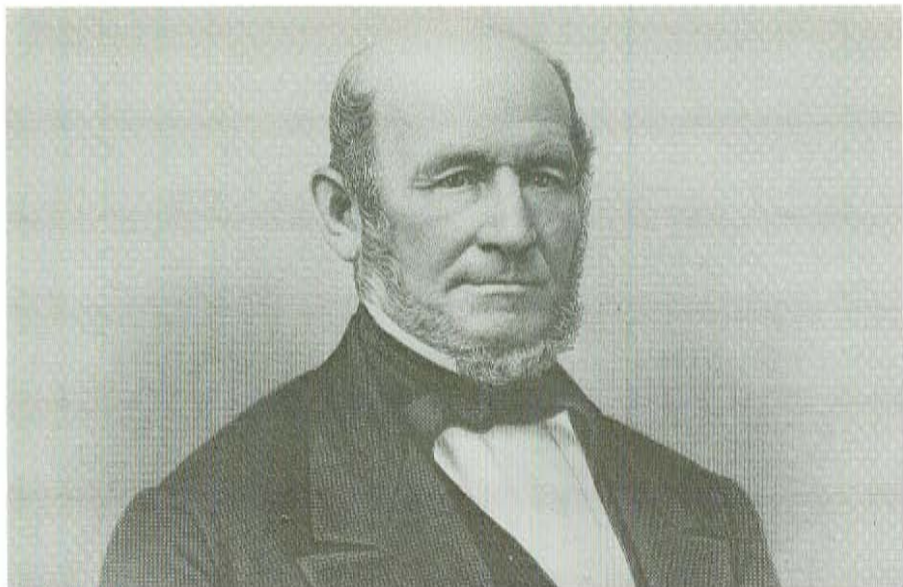
편견과 증오심을 갖고 자라났다. 물몬이라는 이름은 나에게 있어서 추하고 위험한 괴물과도 같은 의미였다. 가끔 꿈에 그들에게 포로로 잡히는 광경을 상상했으며 잠이 깨는 순간 아수처럼 철창에 갇혀서 그들의 포로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마음에 그리곤 했다.

나는 물몬을 본 적이 없었고 아버지를 기억할 수 없었다. 그들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은 할아버지와 그의 가족들로부터 배운 것 뿐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생후 12개월밖에 안되었을 때 두 아내(우리 어머니 클라리사와 어머니의 자매인 에밀리)와 나의 형 아이삭과 나를 앨퍼스 커틀러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유타주로 떠났다. 그 첫 그룹에는 세 여자만 따라갔다. 대부분의 부인은 믿을 만한 친척이나 친구에게 맡겨졌으며 그후 몇년이 지난 후에 유타주로 들어갔다.

약 2년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며 몇개월 후 에밀리 숙모도 돌아가셨다. 할아버지는 아이오와주 멘타이로 이사가서 거기에 자기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자신이 지도자가 되고 그 교회를 “참된 말일성도 교회”라고 했다.

그는 복수 결혼과 십일조의 법을 비난했다. 그는 추종자들에게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였으나 브리검 영이 그의 후계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참된 지도자로서 말일의 사업을 수행할 권능을 갖고 있다고 선언했다.





히버 시킵블

할아버지 가족은 형 아이삭과 나에게 심하게 했다. 그들은 우리를 복수 결혼 가족의 자손이라고 박해했고 욕을 했다.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들은 우리를 유타주로 보내겠다고 위협했고 물몬이 곧 우리를 처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숲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물몬에게 잡혀 간다고 배웠다. 우리는 숲에서 열매를 따다가 나무 덩굴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우리는 바구니를 떨어뜨리고 놀란 사슴처럼 달려 집에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적도 있었다.

1862년 봄에 나는 아이오와주 햄버그에 심부름을 가서 일주일 동안 에드윈 커틀러 삼촌 집에 머물렀다. 거기에 있는 동안 삼촌이 함께 캘리포니아에 가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다. 나는 가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가 콜로라도주 플레트 강에 있는 즐레스버그를 통과할 때까지는 여행이

순조로왔다. 어느 날 아침, 보통 때보다 조금 더 잠을 자서 해뜨기 전에 일어나지 못했다. 삼촌이 나를 깨워 일으키고 그가 나의 시중을 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의 시중을 듣게 하려고 데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나를 하인으로 데려와서 기쁘다고 말했다.

며칠 뒤 숙모가 나에게 삼촌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나는 “캘리포니아가 어디예요?”라고 말했다.

숙모는 “너를 유타주에 있는 아버지에게 데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삼촌과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와이오밍주의 라라미에 도착했을 때 잠시 동안 우리 일행과 함께 여행하고 있었던 제임스 스파이서가 나에게 자기 마차로 오라고 손짓했다.

“네가 유타주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유타주

를 비켜 가는 포트 홀 로드로 가고 있으며 삼촌이 이 여행에서 나를 형편없이 대해 주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내가 원한다면 그와 함께 여행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틀 후에 삼촌이 나에게 와서 “에이브(에이브라함) 가족을 한테 모아라. 오늘 오후에 출발하는 일행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여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나는 더 이상 그와 함께 가지 않겠으며 스파이서와 함께 캘리포니아로 가겠다고 말했다.

삼촌은 내가 스파이서와 함께 가는 것을 도저히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물몬을 만날 때마다 히버 시 킴볼의 잃어버린 아들 한 사람이 자기 뒤에 오고 있다고 말할 계획이라고 했다. 나는 전에 히버 시 킴볼이 물몬의 한 지도자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더욱 더 유타주에 가는 것이 무서워졌다.

그런데 이제 유타주를 향하여 여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돌아갈 수도 없다. 나는 내 운명에 맞서야 하는 것이었다.

와이오밍주 그린 리버 캐리에서 좀더 큰 문제가 생겼다. 우리는 루이스 로빈슨이라는 물몬을 만났으며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는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하면 아버지를 만날 계획이냐고 물었다. 나는 “될 수 있으면 안 만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신 아버지는 훌륭한 분입니다. 당신을 만나면 몹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는 아침에 말을 타고 솔트레이크시티로 출발하는데 거기에 가면 부친에게 당신이 온다고 말씀드리겠요.”라고 말했다.

우리는 유타주 팔리즈 파크 근처의 실버크리크에 도착할 때까지 다른 물몬을 더 만나지 않았다. 거기 도착했을 때 팔

리즈 파크에 윌리엄 에이치 킴볼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나의 이복 형제라고 사람들이 내게 전해 주었다.

나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나는 용감하게 맞서고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나에게 당면한 문제에 맞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그 이복 형제를 만나 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권총과 약간의 담배로 무장하고 작별을 고했으며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한 소식을 마지막으로 듣는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윌리엄은 우리 삼촌의 설명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즉시 나를 알아보았다.

“안녕, 에이브(에이브라함). 어디서 오는 길이나?”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나를 만나서 몹시 기쁜 것 같았으며 같이 자기 집으로 가져가려고 했다. 나는 이것이 함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손을 권총 가까이 두고 언제라도 행동을 취할 준비를 했다. 윌리엄은 집에서 그의 가족과 또 두 명의 형제인 찰츠와 솔로몬을 소개했다. 나는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다. 이 식사는 수개월만에 처음 먹는 식사다운 식사였다. 팔리즈 파크에 있는 친척들은 나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 그들이 나를 괴롭혔다고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끝없이 나에게 질문하려고 하는 것뿐이었다.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하는 데 이틀이 더 걸렸다. 그날 밤 우리는 에미그레이션 스키어에서 야영을 했으며 나는 그 친척들이 좋은 인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몬을 무서워했다. 아침이 되면 그들에게 붙잡힐 것으로 생각했다. 옛날에 그 붙잡혀서 고문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모두 되살아났다. 그날 밤은 몹시 길었다.

정오가 되자 스파이서가 어떻게 할 작

정이나고 물었다. 그는 “네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 배가 들어 온 바와 똑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가족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야.”라고 말했다. 그는 머뭇거렸다.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겨울 동안은 포트 폴로이드에 있을거야. 거기서 오든지 또는 캘리포니아로 나를 찾아 오면 언제든지 너를 가족처럼 맞아들이겠다.”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모두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고했다. 나는 구석에 서서 스피커의 모음이 길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혼자서 끝없이 바라보고 서 있었다.

만약에 교수대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들었다 해도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보다는 덜 주저하며 올라갔을 것이다. 나는 누구하고도 감히 이야기할 용기가 없었으므로 보도로 걸지 않고 길 가운데로 걸었다. 나는 여전히 이것이 함정이며 물몬들이 나를 잡으려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시티크리크를 건너서 길을 물기 위하여 어떤 집 앞에 멈춰 섰다. 우리 아버지가 그 근처에 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 대신에 나의 이복 형제인 찰즈 킴볼에 관하여 물었다. 문에 나온 여자가 바로 찰즈의 부인이었다. 남편은 거기서 멀지 않은 아버지의 헛간에 있다고 말했다.

내가 마당을 걷는 동안 사람들이 창문과 문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내 모습이 좀 이상했음에 틀림없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은 비록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이지만 오래되어서 낡았었다. 밤색 셔츠에 20센티미터나 짧은 흰색 바지에 구두를 신고 양말은 없고 낡은 썩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었다.

형은 마차에 말을 매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놀랐다.

“에이브, 지금 너를 찾아가려는 중이야. 이 말을 다시 풀고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겠다.”

그때 나는 땅이 갈라져 나를 삼켜 버렸으면 하고 원했다. 우리가 어느 집으로 가까이 가는 동안 아버지로 생각되는 사람이 보였다. 그가 몹시 무섭게 생각되었다.

찰즈는 “아들이 왔어요.”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1미터 85센티미터의 키에 예리하게 꿰뚫어 보는 눈을 가졌으며 내 마음을 환하게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그는 친절한 아버지의 음성으로 말을 하고 나를 포용하려 했으나 내가 거부했다. 그는 만나서 기쁘다고 말하고 당신이 나의 아버지인지 알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모르며 알고 싶지도 않다고 말하고 가능한 한 빨리 거기에서 떠나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도 좋다고 말하고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그는 잠시 동안 아무 말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이윽고 침묵을 깨뜨리고 “좀 좋은 옷이 없니?”라고 질문했다.

나는 그 겨울에 아버지와 가족과 함께 살며 학교까지 다녔다. 그들이 보여 준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자라면서 품어 온 물몬에 대한 편견과 증오심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늦은 겨울, 아버지는 나에게 침례받는 것을 생각해 보았느냐고 물었다. 나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나 만일 복음을 믿는다면 침례받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에밀리 숙모를 떠나기 전에 나의 형 아이삭과 나에게 축복을 주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나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그 산의 제곡으로 올 것이며 그 다음에 형을 데리고 오리라고

고 예언하셨다고 했다. 아버지는 내가 봄에 돌아가서 형 아이삭을 데려오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다.

수개월 동안 침례에 관해서 더 이상 이야기가 없었으나 그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느냐는 질문을 다시 받았다. 나는 복음과 교회 회원들에 대한 감정이 따뜻하게 치유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복음이 올바르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아버지에게 침례받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우리는 시티크리크로 갔다. 물이 차고 얼음이 덮여 있었으나 그런 것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침례받은 후 아버지가 확인 의식을 해주시고 형을 데려오는 임무를 위하여 성별하셨다.

1863년 5월, 옛날에 살던 집에 도착하자 할아버지, 할머니, 형, 친구들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도착한 며칠 후 할머니와 대부분의 가족이 하루 동안 친구를 만나러 갔다. 할아버지는 병이 나서 함께 갈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그들이 가고 없는 동안 내가 침례 옆에 있도록 부탁하셨다.

단 둘이 있게 되자 할아버지는 유타주로 여행했던 것에 대하여 질문하셨다. 아버지를 만났느냐고 질문하셨다.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내가 아버지를 만난 것이 기쁘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침례받았느냐고 물으셔서 받았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놀라게도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물몬과 아버지에게 대하여 편견을 갖게 했다. 이제 그 편견을 없애 주는 것이 내 의무라고 생각한다.

“나는 히버 시 킴불이 네 아버지이며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네가 그 사실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너와 아이삭이 내가 사는 동안 나를 지지해 주기 원하였다. 나이 들고 병드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이제 너는 가서 아버지를 만났다. 그렇게 되어야 해. 내가 나뻐.

“나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였으며 브리감 영이 그의 합당한 후계자라는 것을 알아. 항상 그것을 알고 있었다. 문제는 항상 내가 인도하려고만 했지 인도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야. 나는 내 인생을 살았고 이제 내 행동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할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고 목청을 가다듬으셨다.

“네가 아이삭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를 바란다. 그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네가 복음에 또한 물몬 사상에 끝까지 충실하기 바란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너를 구원하고 승영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는 어린 아이처럼 우셨다.

아이삭은 아버지에게 관하여 진실을 알게 되자 기꺼이 나와 함께 유타주로 가고 싶어했다. 할아버지와 그런 이야기를 나눈 며칠 후 우리는 유타주로 출발했다. 우리가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우리를 보고 몹시 기뻐하셨다. 우리를 반기이 그의 가정으로 맞아들이고 우리는 기쁘게 거기에 정착하였으며 평생 그 어느 때보다 더 사랑받으며 편안함을 느꼈다. \*

# 질 의 응 답

다음 대답은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고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질문 :** 순결의 범을 어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 :** 벌 에프 스카트, 전 감독, 스테이크 부장, 선교부장, 대제사

그룹 지도자, 슬트레이크 캐년 림 스테이크 캐년 림 제4와드

질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순결이라는 말은 사전에서 “마음과 몸이 깨끗함”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초대의 사도와 예언자들은…… 수많은 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것이 간음, 부정, 음탕, 불의, 무절제, 추잡한 대화, 불순결, 무절제한 애정, 사통 등의 성적인 죄였습니다. 거기에는 혼외 성교, 애무, 성도착, 수음, 성에 관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또한 모든 숨겨진 죄와 은밀한 죄, 성스럽지 못하고 순결치 못한 생각과 행위도 포함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전 성교를 허용할지 모르지만 주님과 그의 교회는 결혼 이외의 어떠한 성 관계도 모두 명백히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킴블 대관장께서 도덕에 관해 강조하심” 성도의 빛, 1981년 4월호, 157-158페이지)

순결을 순식간에 갑자기 잃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상실하여 마침내 “부당한 성 관계”로 인하여 여기까지 이르는 모든 죄가 완결됩니다. 그렇지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기 위하여 자신의 행위를 바꾸고 완전한 회개를 통하여 한 단계씩 거룩한 용서로 인도하는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윌리엄 네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려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자신이 행해야 하는 것을

어느 아름다운 여름 밤, 산속의 멋진 통나무집 현관에 앉아 있는 동안 작은 나방이 날아와서 현관 등 주위를 맴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나방은 뜨거운 전구에 닿으면 방향을 바꾸었으나, 마치 저항할 수 없다는 듯이 전구를 향하여 다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뜨거운 유리에 반복해서 접촉함으로써 심하게 데어서 화상을 입고 무기력하게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이 나방처럼 젊은이들은 빛나는 성적 매력의 불빛에 끌려갈 때가 흔히 있습니다. 그리하여 안되는 줄 알면서도 부정한 열정의 열기에 휩싸여 위험한 장난을 하고 마침내 큰 상처를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순결을 잃게 됩니다.

부당한 성적 관계에 의하여 순결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렇지만 예,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는 길은 쉽지 않고 여기에는 완전한 회개가 따라야 하지만 희망과 용기를 가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다.”(리처드 엘 이 반스 인용집, 솔트레이크시티, 퍼블리셔즈 프레스, 1971년 200페이지)

물문경에서 엠올레크는 이렇게 영감받은 훈계를 했습니다. “보라 이 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요, 이 생애의 나날은 사람이 저들의 일을 수행할 날들이다.

“……너희의 회개를 마지막까지 미루지 않기를 바라노라. 영생을 준비시킬 목적으로 주어진 이 생이 지나며, 보라 우리가 생을 누릴 동안 시간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아무일도 할 수 없는 밤의 어둠이 다가오느니라……

“보라 너희가 죽기까지 회개를 미루면 너희는 악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 악마가 너희를 적의 것으로 하며,”(앨 34 : 32-33, 35)

참으로 인간은 물몬의 수많은 니파이 인처럼 회개하는 것을 너무 오래 미룰 수 있습니다. 레이맨인 사무엘은 그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라 너희들의 시험의 날은 지났도다. 너희가 너희의 구원의 날을 미루어 마침내 영원토록 돌이키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하였고, 너희의 멸망은 분명하게 되었도다.”(힐 13 : 38)

시작해야 합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이 그의 훌륭한 저서 용서가 낳는 기적에서 회개의 단계를 밝히고 훈계를 주셨습니다. 그대로 따르면 범법자가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완전한 회원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에는 조건이 따른다. 상처만큼 봉대도 커야 한다. 금식, 기도, 겸손이 죄값과 같거나 더 커야 한다. 애통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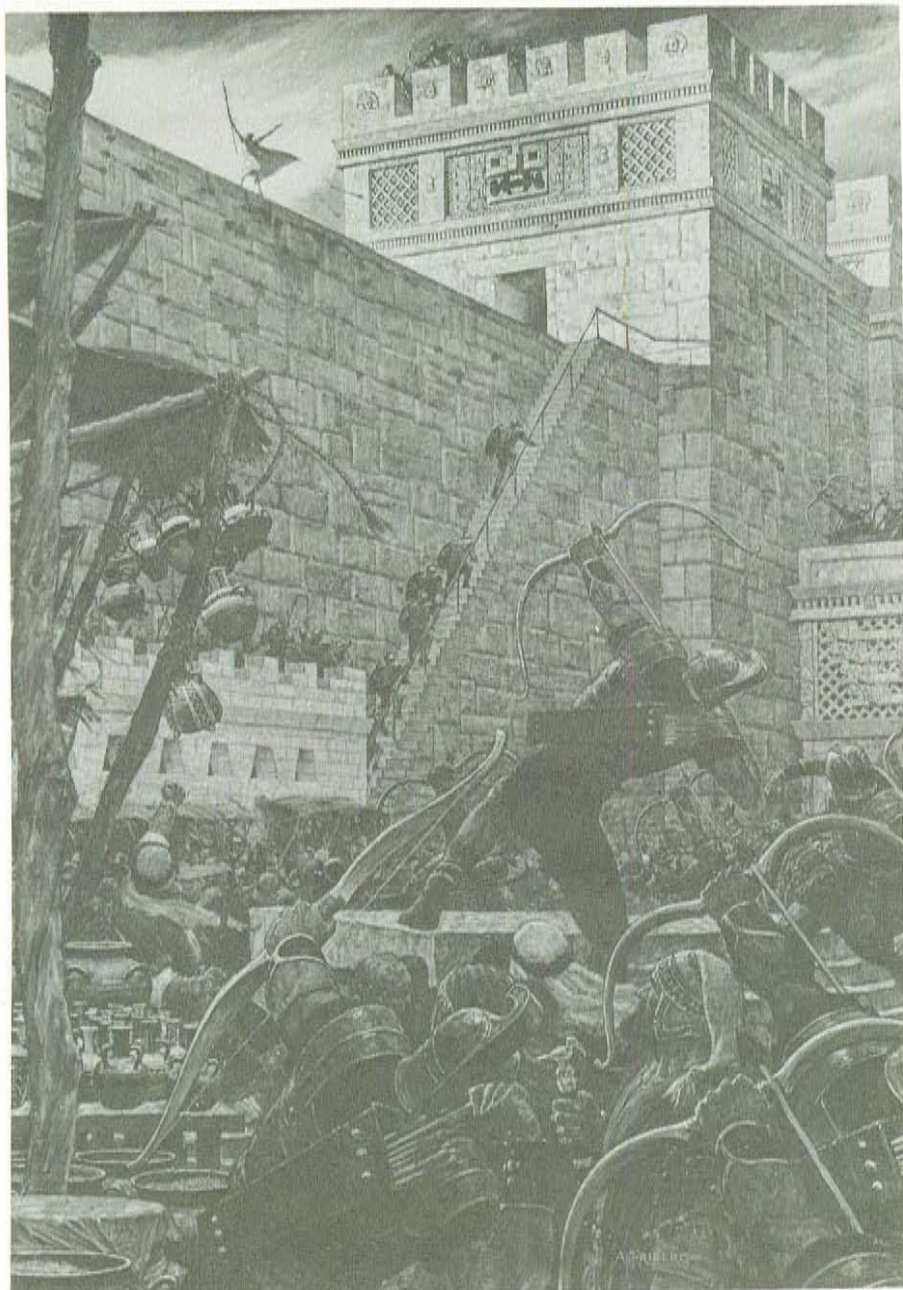
순결을  
순식간에  
갑자기 잃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상실합니다.

마음과 상한 심령이 따라야 한다. 크게 애통해야 하며 비탄에 잠겨야 한다. 눈물과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죄를 인정하고 악을 버리며 주님의 합당한 종에게 죄를 고백해야 한다. 보상을 해야 하며, 방향과 목표의 확고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주어진 여건을 통제해야 하며, 상대자와의 관계가 변화되어야 한다. 깨끗하게 되도록 옷을 빨아야 하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대로 생활하겠다는 새로운 결의가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아와 죄와 세상적인 일을 극복해야 한다.”(용서가 낳는 기적, 315페이지)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넘어서 완전하고 진실한 회개에 의하여 얻게 될 궁극적이고 영원한 축복을 바라볼 수 있으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선행을 배우며……

“……너희 죄가 주홍갈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찌라도 양털같이 되리라”(이사야 1 : 16-18)\*



예언을 전하는 레이매인 사뮤엘(헨라맨서 16장 447~449페이지)

고전적인 설교

# 영혼을 위한 투쟁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

1928년 5월 5일, 솔트레이크 태버넌클에서 행한 말씀

나는 3주일 전 오후, 대회 일반 총회에서 말일성도와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있는 몇 가지 주제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는 특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약 600년 전에 이 세대를 위하여 메시지를 전한 미대륙의 영감받은 선지자 니파이가 전하신 것이었습니다. 허락된다면 나는 그 가르침의 영 가운데서 말씀을 계속하고 싶으며 그 목적을 위하여 니파이에서 28장의 몇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참으로 많은 자들이 말하기를 먹고 마시고 즐기라. 우리는 내일 죽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움이 우리에게 좋으리라 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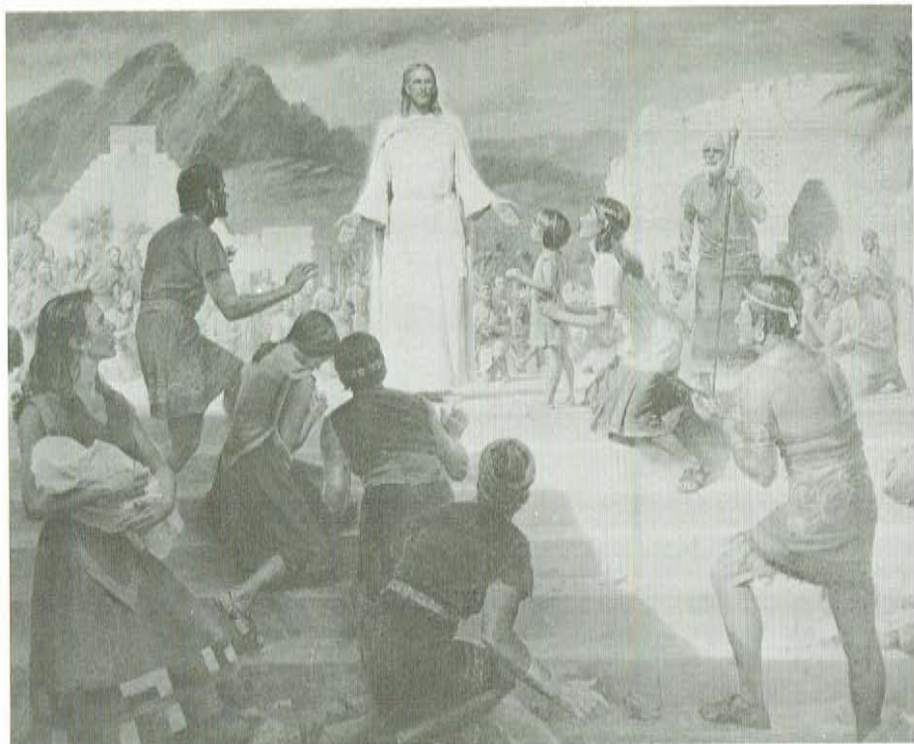
“또한 많은 자들이 이르기를 먹고 마

시고 즐기되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은 죄를 조금 지으면 용서하시리니, 거짓말도 조금 하고 사람의 말을 트집잡아 이익을 얻으며, 하나도 해될 일이 없으니 이웃을 빠뜨릴 함정을 파는 등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라. 우리는 내일 죽으리라. 우리에게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매로 몇 번 치실 것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구원을 받으리라.”(니이 28 : 7-8)

19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이는 악마의 왕국이 반드시 흔들릴 것임이요, 악마에게 속한 자들을 깨우쳐 회개하게 함이 필요함이라. 저들이 회개하지 않을진대 악마가 저들을 움켜쥐어 영원한 사슬에 얽어 뱌는 것이요, 주의 노





여움을 사 멸망당하리라.

“보라 그날에 악마가 인간들의 마음에 노여움을 일으키며 선한 것에 대하여 성을 내도록 책동하며,

“많은 다른 자들을 달래어 육육의 안식처를 좇게 하며 이르기를,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되리라. 참으로 시온은 번성하며 모든 것이 잘되리라고 하리니 이같이 악마가 저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저들을 지옥으로 인도해 가느니라.

“또한 보라 다른 자들을 달콤한 말로 꾀어 저들에게 지옥이 없다 하며 이르기를, 악마란 없는 것임에, 나는 악마가 아니로다 하며, 저들의 귀에 속삭여 말하기를 저들을 움켜잡아 무서운 사슬로 얽어 뭇 때까지 하며, 그때로부터 저들은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되리니.”(니이 28 : 19-22)

나는 2년 전에 웰즈 장로 닷 프랫 장로와 함께 남아메리카에서 교회 선교부를 열었습니다. 그 기간에 사색하고 연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멀리서 보면 경치가 아름답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때로는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다는 뜻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시 교회 본부로부터 1만 8천 킬로미터나 떨어져서 사물의 실체를 보기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알던 세계를 떠나 새롭고 전혀 다른 세계로 간 것입니다. 언어도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풍습, 하늘, 땅 모든 것이 이상하고 다르게 보였으므로 나는 마치 세상을 떠난 사

말일성도로서 우리는

결코

악마가

피물같이 생겨서

긴 빨과

갈라진 발굽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탐같이 느꼈으며 당시 그러한 상황의 시간이 정말로 도래할 때 틀림없이 갖게 될 많은 생각과 연구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독서할 기회가 있었으며 이것은 스캐인어 공부에 있어서 뿐만 아니고 구할 수 있는 영어로 된 것은 모두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성경, 불문경, 교리와 성약 및 우리 교회 정사 6권도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의 진보와 현재 위치와 탁월할 미래에 관하여 생각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탁월 위험으로 가득 찬 기간에 관하여 너무나 분명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회원의 복지에 대하여 또한 참으로 내 이웃에 대하여 강렬한 소망을 느꼈으므로 주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신다면 인간의 자녀에게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에 관하여 경고함에 있어서 음성을 높ی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나는 그 위험한 시기가 닥쳐오는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평화와 번영의 시기에……말하자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기에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투쟁의 시기에는 굳건히 서서 자신의 원리에 충실하지만 독립하여 번영하는 시기가 오면 이런 높은 표준을 잊고 그 번영과 성공이 가져다 주는 권세를 느끼고 자신의 의도와 욕망을 만족시키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이것은 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전세계가 사물의 새로운 질서가 솟아날 방종의 시기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또한 교회 자체도 우리가 겪어야 할 이 새로운 시대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리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생각해야 할 것이 다만 인간의 능력만이 아니오 인간에게 닥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다른 권세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충실한 아들 딸이 처음으로 이 지상에 오려고 했을 때 경고와 주의를 받았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는 육신을 소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육신을 가져 본 적이 없었으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소유하고 우리의 종으로 삼아 지배하고 존중하되 다스려야 하는 책임을 받았습니다.

둘째, 우리는 이제 대다수를 이루는 적의 면전에 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 눈이 우리 주변에 거하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는 그 권세를 직접 보게 된다면 우리는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는 걸을 용기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 권세는 우리 주위에 있으며 그들의 두목, 하나님의 타락한 아들을 위하여, 탐내는 위치를 쟁취하기 위하여, 특정하고 분명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들의 영향

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떨어질 때 하늘이 울었으며 그는 루시퍼, 악마가 되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그의 행동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주님을 유혹한 것을 예로 봅시다. 주님이 어디에 가셨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주님이 침례받으신 후에 이 시기와 탐욕에 찬 형제는 그것을 알고 그가 육체적으로 약해진 순간에 만나서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포함되어 있는 큰 질문은 돌이 썩어지게 하라거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되는 정말로 중요한 질문의 서쪽에 불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과노라마처럼 세상의 왕국이 스쳐갔으며 미혹자가 그 왕국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신 것은 부분적으로는 왕국을 지배할 권리를 얻기 위함이었다는 것과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될 권리를 얻기 위하여 죽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겠다고 제안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미혹자는 예수님에게 단지 무릎을 꿇고 악마를 경배하기만 하는 쉬운 조건으로 이 모든 명예와 특권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갈보리에서 죽을 필요없이 나를 경배하기만 하라. 이 왕국이 다 내 것이며 네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 유혹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발에 덮을 놓는 자가 누군가에 관하여 모르신 순간이 혹시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모든 의심이 사라졌으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마 4:10) 그러자 사단이 주님에게서 떠났습니다.

이 세상의 왕국을 주겠다고 한 자가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의 권세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권세를 받아들였다면 속았을 것이며 현재 그 권세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아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세상의 왕국을 다스릴 참된 권리와 권세를 얻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패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 기간에 주님에 의하여 계략이 좌절된 이 배척당한 자의 목적은 여전히 이 세상의 왕국을 다스릴 권리를 얻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그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1820년 봄, 선지자들이 미리 알았던 때, 천사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갖고 공중에 날아갈 때,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전에 엘리야가 지상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 다가온 때, 다니엘이 해석해 준 느브갓네살의 꿈에 담겨 있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결코 무너지지나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왕국 건설에서 영광스럽게 성취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그 시간이 오자 그 사실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뿐 아니라 지상에서 지배하는 권세를 지닌 자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악마가 나타나서 그런 약속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도구가 될 소년을 휩싸고 그를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그것은 일어날 것같이 보이는 상상의 파멸이 아니었으며 실재하는 확실한 권세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사자, 마지막으로 복음의 경륜의 시대, 즉 지상을 가득 채울 때까지 계속될 사업의 시작과 관련하여 방문을 받게 될 사람을 죽임

으로써 하나님의 사업을 억제하고 자신을 위한 악의 날을 연장시키고 싶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의 시작이었습니다. 악마의 권세가 그 진보와 성장과 발전을 중단시키려 했던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도 그 시간이 온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소년을 방문하셨으며 이 위대한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지상에서 다스리도록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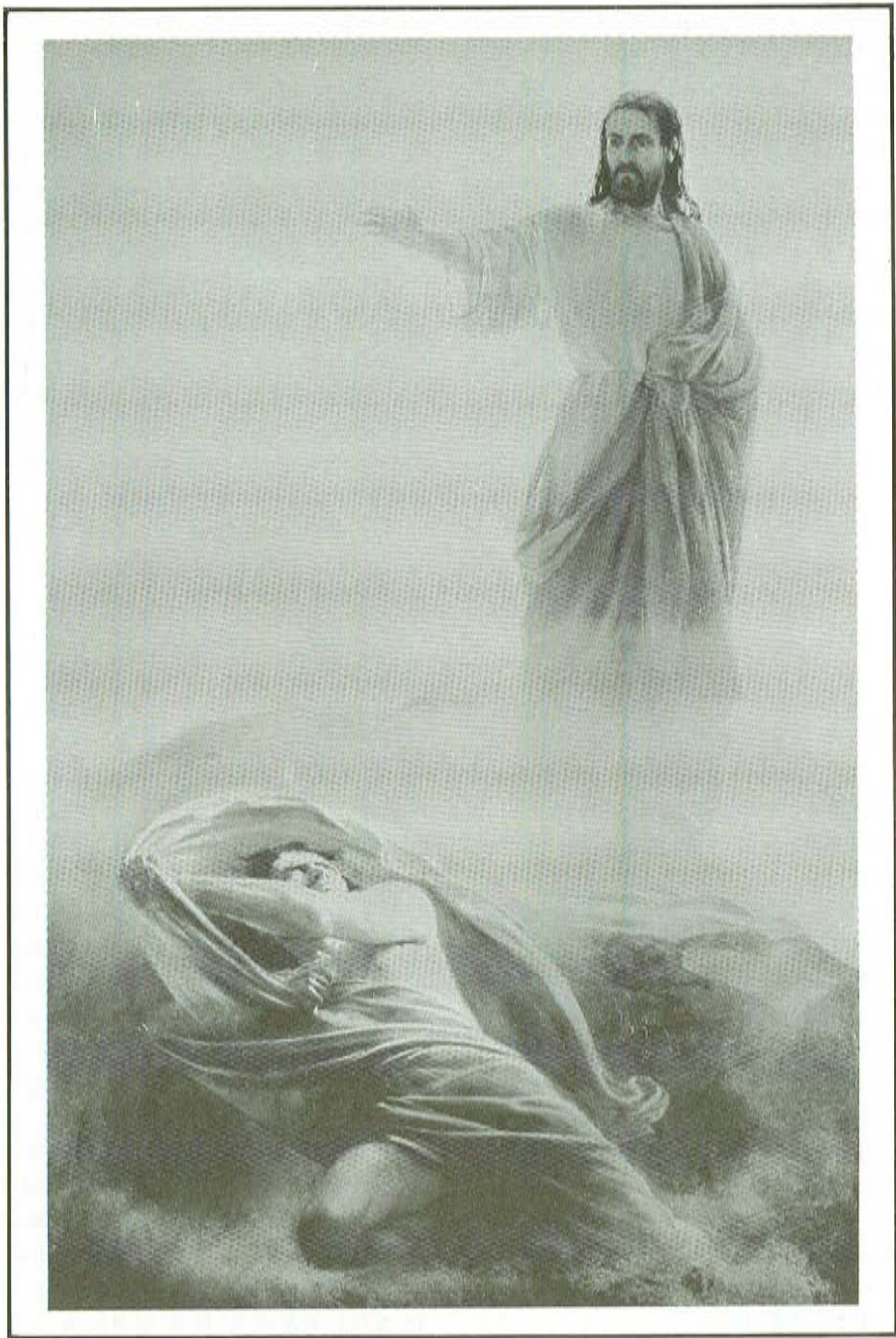
그러므로 예언자가 처음 투쟁한 날로부터 교회 주변에는 항상 충돌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역경하에서도 투쟁하여 우리의 길을 뚫고 나아갑니다. 사탄은 이것을 멈추기 위하여 사용했던 수단 즉 폭도의 폭력, 살인, 박해, 속박과 투옥, 국민으로서의 권리 박탈, 온갖 슬픔과 고통에 의해서는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만족하지도 않고, 전투를 끝내지도 않고 새로운 방법에 의하여 이 사업을 파괴하려 할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원수는 종말에 가서는 자신이 승리하여 이 세상의 왕이 되리라는 헛된 생각을 갖고 또 확실히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대 선지자들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가 올 시간을 예언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이야 어쨌든 누가 다스리고 지배할 권리를 갖고 있나 하는 문제가 해결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살았거나 죽었거나 모든 의인이 이 투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이며 이것은 살았거나 죽었거나 모든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될까요? 이 일이 얼마나 빨리 닥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압니다. 즉 이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가 빨리 나타나고 있으며 그 전쟁이 닥칠 것이며 양측에서 굉장한 활동을 하며 그 전쟁에 대한 준비로 나날을 보내고 있으므로 우리가 우주에서 큰 관심의 초점이 되리라는 것을 안다면 깜짝 놀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계 역사상 크고 중요하고 위험한 시기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통치하고 지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할 이 다가오는 전쟁을 위하여 굉장한 군대가 양측에서 조직되고 있습니다. 한편 나는 악마를 한 개체로서, 한 실체로서 이야기합니다만 세상에는 악마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마가 사람들을 떼어 “악마란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나는 악마가 아니로다”라고 속삭이리라고 니파이가 말한 대로입니다. 말일성도로서 우리는 결코 악마가 괴물같이 생겨서 긴 뿔과 꼬리와 갈라진 발굽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외형적으로는 신사이며 만일 그를 보게 된다면 몸을 돌려 다시 쳐다보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는 우리보다 더 유식하며 실재합니다. 그가 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처럼 그가 살아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가 인간을 죽이고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복하려 한다 해도 그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나아가 오늘날처럼 적극적이었던 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세상 곳곳에 그의 징집소가 있으며 그들이 무장되어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에게는



군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는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에게 더 많은 군대가 있어서 승리하리라는 헛된 소망으로 큰 전쟁에 대한 준비로 사람들을 자기 편에 소집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가 그의 편에 설 것이며 그의 군대가 얼마나 많아질까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그 전쟁의 끝은 태초의 결과와 똑같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살아 있는 것만큼이나 분명히 압니다. 그가 태초에 타락하여 하늘로부터 쫓겨난 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가 얼마나 많이 자기 편으로 모으든지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든지 간에 그가 패배하여 지상으로부터 추방당하고 자기 지위에서 쫓겨나리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소유를 주장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려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내가 걱정하는 것은 그 전쟁의 결과가 아니고 내가 악마의 편에 설 것인가 주님의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이 주님의 편에 있는지 아닌지 알아야 할 좋은 때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원수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행위는 모두 육신을 도구로 삼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육신이 불완전한 상태의 세상의 본질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가 지상의 요소를 지배할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신의 정욕, 욕망, 야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접근할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은 모두 우리 육신 안에 거하는 영을 통하여 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강력한 군대가 이 두 경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에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간이 겪게 될 가장 큰 전쟁(그들의 적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영과 육신을 “나”와 “그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 육신 안에 거하며 이런 육신을 갖기 전에 살았으며 이 육신을 벗어날 때도 살게 될 개체입니다. “그것”은 내가 사는 집이며 육신의 장막입니다. 그리고 큰 싸움은 “나”와 “그것”의 싸움입니다.

나는 수년 동안 함께 해아림을 받았던 선교사에게 자아를 판단하고 자신의 과실이나 약점을 바로 잡고 길서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혼자서 자신을 살펴보고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나”와 “그것” 가운데서 누가 이기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시간 약속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모든 회원을 위하여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이루어집니다.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의 상징물을 준비하는 것을 보는 시간이 성찬식 모임이며 이 시간은 모든 사람이 은밀하게 자신과의 모임을 갖고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는지,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는지, 회개할 필요가 있는지, 또한 있다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형제 자매와 주님과 화평을 맺어 우리가 합당하지 못하게 손을 뻗쳐 이 거룩한 상징물을 먹고 마시든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 회원이 이 “나”와 “그것”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는지 알도

록 정하신 또 다른 시간은 첫째 주일입니다. 이날 우리는 두 끼 동안 음식을 전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오면 내가 사는 집인 “그것”이 음식을 안 먹을 수 없다고 불평합니다. “두통이 날거야, 무릎이 떨릴거야, 현기증이 날거야, 그렇게 오랫동안 금식하지 못해, 좀 먹어야 해.” 여러분은 이런 불평에 굴복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나”와 “그것”이 이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고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집, 나의 종인 “그것”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두 끼 안 먹고도 견딜 수 있어. 해롭지 않아. 사실은 유익하게 될거야. 또 두통이 나고 몸이 약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죽지는 않아. 내가 너보다 더 크며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 줄테야.” 이런 것은 내일 다른 욕망이 올 때 저항하도록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술, 담배, 기타 욕신의 욕망이 될 수도 있으며 나는 내가 사는 욕신에게 이렇게 말할 힘을 얻었습니다. “너는 이 장막을 더럽힐 수 없어. 나는 이것을 깨끗하게 하겠다. 이 욕신을 더럽게 하지 않겠다. 이 욕신은 내 종이야. 욕신은 깨끗하게 지켜야 해.”

그러나 영을 잘 보살피지 않으면 결코 그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음식을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성장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욕신을 지배하는 강한 영을 갖고 싶으면 반드시 자기 영이 영적인 음식을 먹고 영적인 운동을 하게 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영적인 음식을 얻습니까? 저는 방금 교회 회원들이 1주일에 한 번씩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

신 피의 상징물을 먹고 마시도록 성찬 테이블에 초대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육체가 아니라 영에 축복이 있으니 이것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적인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 은밀한 기도와 가족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찾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눈을 감고 물질적인 세계를 차단하고 영혼의 창문을 열어 자신에게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권세를 끌어들이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 안으로 이 힘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회와 또 다른 기회가 영적인 음식을 위하여 제공되며 우리 이웃을 위한 봉사를 통하여 영적인 운동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음식도 안 먹고 운동도 안하는 사람은 곧 영적인 약자가 될 것이며 욕신이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영적인 음식을 얻고 운동을 하는 사람은 이 욕신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육체가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계속하게 할 것입니다.

악마가 우리를 사로잡기 위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일이 육체를 도구로 삼아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체가 바로 접촉선입니다. 하나의 쇠사슬은 그중 가장 약한 접합체보다 더 강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쇠사슬은 그 약한 지점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약한 접합점이 욕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악마는 그 약한 고리를 알며 한 영혼을 사로잡고자 할 때 그 약한 지점을 공격할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강한 지점이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의 강한 지점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한 번은 오래근주의 큰 숲을 여행하면

서 다른 나무는 모두 서 있는데 한 큰 나무가 걸어서 보기에 아무 이유도 없이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조사한 결과 오랫동안 나무 꺾질 안에서 눈에 안 보이게 어떤 작업이 진행된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곤충이 그 큰 나무에 가로로 핀보다 작은 구멍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약한 고리가 생겼으며 작은 압력에도 그 큰 나무는 넘어졌고 약한 곳을 노출시키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어떻게 인간 생활과 같은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정직하게 보이며 모든 외모로 보아서는 강하게 보이지만 은밀한 약점과 습관을 방치함으로써 원수가 공격하도록 문을 열어 두며 그들의 파멸이 될 약한 접합점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테가 그의 작품 파우스트를 쓸 때 우리 영혼의 원수가 공격하는 방법에 관하여 약간의 진리를 말하도록 영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나이 많은 파우스트가 다시 젊어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을 아십니다. 그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구하는 것은 불법이었으므로 주님은 그에게 응답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고집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악마가 파우스트에게 했듯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이 상당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악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해주겠다. 너를 젊은이로 만들어 주겠으며 네가 젊은이가 되면 처녀를 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아름다운 마거리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주면 너의 육체가 끝날 때 네 영혼이 내 것이 된다

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악마가 원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고 불사 불멸의 영입니다. 그리고 육체가 영을 노예로 만들 수 있으므로 육체를 통하여 영혼을 사로잡으려 하나 영이 육신을 중심으로 삼고 육신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파우스트는 젊은이가 되었을 때 처녀의 약속을 기억했으므로 두 사람이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교회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시 파우스트는 그녀를 붙들러 가려 했으나 악마가 말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서둘지 마. 그런 방법이 아니야.” 여기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악마는 어떤 사람도 그런 방법으로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는 인간을 순식간에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붙들고 노예로 속박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하도록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사탄이 주님을 떠난 것처럼 즉시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가려고 하지 않으면 사탄은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는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거리트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악마가 그녀를 이겨야 합니다. 그들은 그녀를 조사해서 약점을 찾아 냈습니다. 그녀는 순결하고 덕스럽고 훌륭한 소녀였으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허영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약한 부분을 공략합니다. 정원에 보석을 두고 거울을 함께 놔 두었습니다. 그녀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허영심으로 인하여 보석을 걸치고 거울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살피게 됩니다. 그 심리적인 순간에 미혹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애인이





월 사람으로부터 온 선물로 줍니다. 그녀는 그 보석을 간직할 충동을 받습니다.

그 연인들은 그날 오후를 함께 보냅니다. 정원으로부터 마거리트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녀는 새로 찾은 연인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심리적인 순간 미혹자인 악마가 나타나서 파우스트의 손에 약을 한 알 쥐어 주면서 이것을 어머니의 저녁 술잔에 넣으면 곧 잠이 들어 두 연인을 방해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합니다. 저어 어머니의 영향력으로부터 몰래 빠져나가서 슬픔의 비탄에 부딪치는 여러 소녀의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왜 모든 소녀에게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가능한 한 어머니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 경고가 충분하지 못한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한 모금 마시고 잠이 듭니다. 연인들은 그 밤을 함께 지냅니다. 아침 일찍 오빠 발렌티노가 그 장소에 나타나서 어머니가 죽은 것과(그것은 죽음의 잠입니다) 낯선 사람이 누이 마거리트와 함께 집에 있는 것을 봅니다. 곧 싸움이 일어나고 결투가 벌어져 오빠 발렌티노가 죽습니다. 이제 마거리트는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깨닫고 자기 행동의 결과를 인식합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죽였고 오빠를 죽게 했으며 자신의 죽음보다 못하게 순결을 잃었습니다. 다음 순간 그녀가 울면서 자기 머리를 잡아 뜯는 것이 보이며 악마가 웃으며 그 장면에 나옵니다. 그는 또 다른 영혼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녀는 강하게 무장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약점이 있었으며 그것을 통하여 원수가 그녀의 존재 안으로 들어와서 그녀가 쓰러졌습니

다.

바로 이런 과정에 의하여 은밀한 악점과 악함이 우리의 영혼의 적이 들어올 문을 열어 두게 되며 이 원수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소유하며 여러분은 그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는 들어온 다음에는 그의 희생자를 피어서 안도감을 갖게 하며 그들이 조금은 거짓말로 하고 도적질도 하고 죄도 지을 수 있으며 때로 몇 번 맞고는 결국 잡힐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은 악마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기 위한 악마의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는 그가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오늘날 영혼을 사로잡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 교회를 대적하여 특별한 육신의 적이나 운동이 조직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영혼의 적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방법에 의하여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시험받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공격받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만일 사탄이 입구만 만들 수 있다면 그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나는 개인적인 시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며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대열을 막고 자신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대적하여 조직된 군대와 권세와 그들의 목적을 아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리 경고받았으므로 미리 무장해야 하며 나는 교회가 받은 복음 원리는 모두 그 본질상 우리를 우리 영혼의 원수의 공격에 대항하여 철과 갑옷으로 강화시키기 위하여 계산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예를 들어 지혜의 말씀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대의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고 흠없이 지키는 데 있어서도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원수가 과거에 사용했

고 오늘날에도 사용할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그들을 부드럽게 한 단계씩 영적인 생활에 대적하는 가장 크고 파괴적인 죄 즉 방종의 궁극적인 결말인 부도덕으로 인도함으로써 영혼을 사로잡는 방법입니다. 어떤 국가도 부도덕의 세대를 이기고 존속하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존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미혹자는 인간이 죄에 눈이 멀도록 유도하며 심지어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십계명의 굳은 힘과 권세를 버리며 불법적이고 부당한 성적인 관계를 전혀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나는 이것이 영성에 반대되는 무서운 죄이며 또한 인간과 백성의 생명을 거슬리는 무서운 죄라고 선언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물론 저에게는 죄와 악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노인이 될 때 그런 것을 극복할 것입니다. 오늘 먹고 마실 것이며 회개는 내일까지 미루었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지요.”

나는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는 지금처럼 육신과 악마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극복할 수 있을 때가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점을 선언하고 싶습니다. 또한 가장 좋은 시기는 젊은 시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습관의 권세와 영향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죄인이 나쁜 습관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변명할 때가 흔히 있습니다. 나는 좋은 습관은 나쁜 습관만큼이나 강력하게 인간의 행동을 다스릴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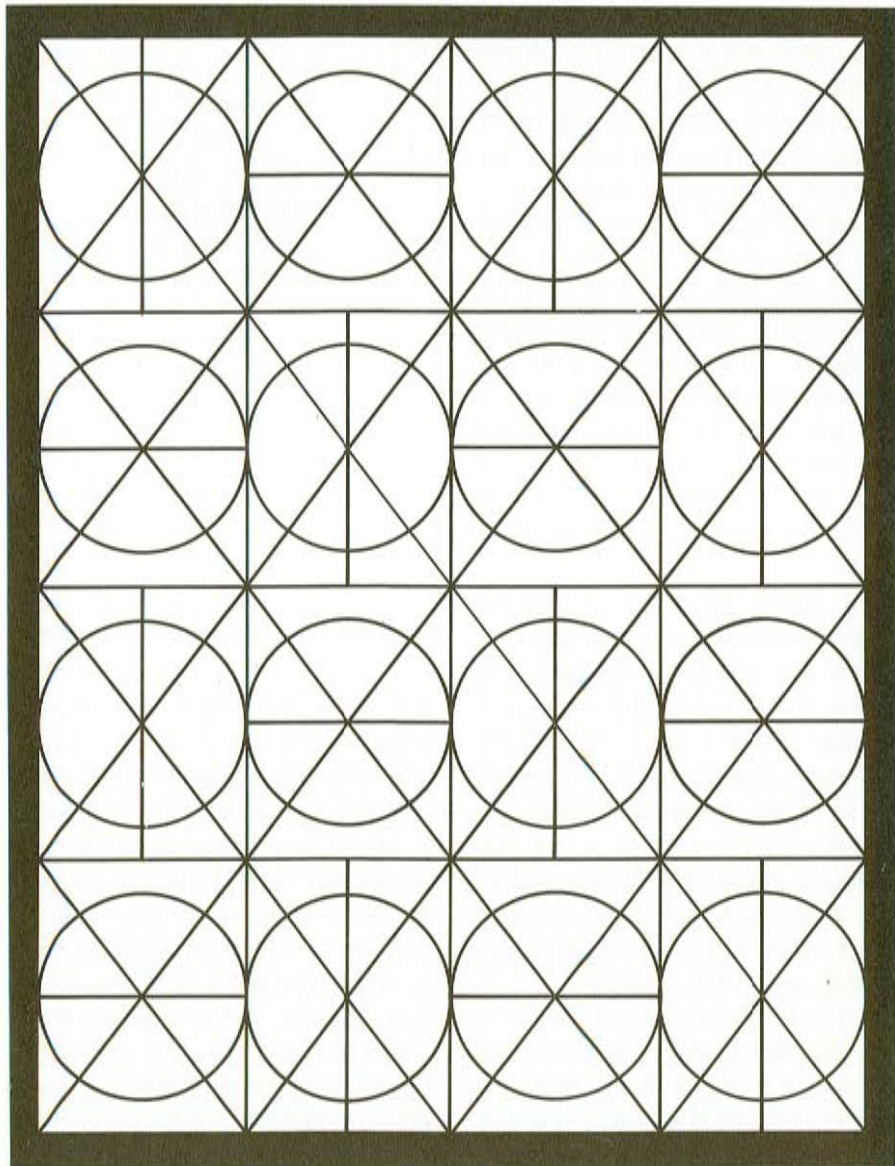
그런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좋은 습관과 덕스러운 생각과 의로운 행동과 정직과 인격을 쌓는 것을 배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하면 그들의 힘과 권세의 시

악마가  
우리를  
사로잡기 위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육체를 통하여  
행하여질 것입니다.

기가 올 때 젊은 시절의 악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들의 힘의 큰 부분을 사용하는 대신 또한 그들의 생활에 걸코 들어오지 말았어야 할 것을 정복하기 위하여 싸우는 대신에 “좀더 당당하게 대저택 즉 내 영혼을 쌓기” 위하여 나아가는 데 그 힘을 사용할 것입니다. 인간은 한 순간에 나쁜 곳으로 멀리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천천히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급속하게 미덕의 길로부터 벗어나 부도덕하게 되지 않는 것은 축복입니다. (벨라드 장로는 1873년 유타주 로간에서 태어나 1919년 1월 7일에 사도로 성임되었다. 그는 1939년에 죽었다.) \*

## 숨어 있는 삼각형

이 도표에서 삼각형을 몇 개나 찾을 수 있나요?  
소피 웨슬



# 두 가지 사이

베티 로우 멜

토미 티파나는 만 3세가 되던 해부터 매년 그의 백성의 옛 전통 의식을 배우기 위하여 짧은 기간 동안 할아버지 유타크와 함께 황야로 나갔다. 그러나 토미의 아버지는 튼튼한 나무집에서 살며 눈자동차를 갖고 있는 현대의 에스키모였다. 그는 옛 방식에 찬성하지 않았으나 토미가 할아버지 유타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도록 허용했다.

토미가 만 10세가 되던 해에 할아버지 유타크가 개썰매로 아낙투부크 파스를 통과하는 여행을 하자고 했다. 그래서 토미는 어느 날 아침 일찍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할아버지 썰매의 곰가죽 옷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유타크가 긴 채찍을 휘하고 휘두르자 개들이 눈덮인 튼드라 속으로 달려나갔으며 여행이 시작되었다.

그날 저녁 유타크와 토미는 개들을 정지시키고 순록 고기 조각을 먹였다. 그 다음 유타크가 그의 아요타크(조사할 때 쓰는 긴 막대기)로 눈 위를 푹푹 두들겼으며 두 사람은 짹짹하고 다시 들려오는 깊은 음향을 들었다. 토미가 가리키며 “좋은 장소예요.”라고 말했다.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여기 눈더미가 튼튼하고 깊다. 훌륭한 이글루(눈집)가 될 거야. 너는 잘 배우는구나.”

그들은 함께 눈 벽돌을 잘라 내어 쌓았다. 그리고는 이은 부분과 갈라진 틈을 부드러운 눈으로 채워 넣고 그들이 들어갈 조그만 문만 남겨 놓았다. 그들은 불

을 지켰으며 그날 밤은 모든 것이 따뜻하고 아늑했다. 그 다음 그들은 얼음에 구멍을 뚫고 북극 송어를 낚시로 잡았다. 토미와 유타크가 식사를 하는 동안 유타크는 손자가 기쁘게 여겨졌기 때문에 불빛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유타크는 격려하며 이렇게 말했다. “네가 우리 백성들의 생활 방식을 배우는 것은 좋은 일이다. 곧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매우 적어질 것이며 새 방식은 나빠.”

토미는 당황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새 방식대로 사세요. 그것이 어떻게 나쁘죠?”

“네 부모는 가게에 가서 음식과 옷을 산다. 그들은 낚시하고 사냥하고 가죽을 무두질하고 바느질하는 방법을 있었다. 그들에게는 개썰매가 없고 눈자동차를 탄다. 토미,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기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이글루 밖에 다 있단다.”

유타크는 잠들었으며 토미는 불을 바라보며 그의 곰가죽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밖에서 흰 담요로 모든 것을 덮는 뽁뽁거리는 눈소리가 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옛날 방식과 새 방식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좋은가 하는 의문을 가졌다. 토미는 둘 다 좋아했다.

불이 약했기 때문에 토미와 유타크는 아침 일찍 급히 식사를 하고 옷을 입었다. 토미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구두 물레에 순록의 가죽 끈을 감았다. 그는 털코트의 두건을 얼굴에 꼭 잡아당기면서 눈부시게 빛나는 새로운 하루를 맞으며 기어 나왔다. 개들은 토미가 언 고래 기름 조각을 던져 주자 몸을 흔들며 그들의 코트에서 눈을 털어 내며 짓고 뒸는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그들이 다 먹자 토미는 그들을 썰매의 클레로 몰아 넣고 유타크를 기다렸다. 그러나 유타크는 이

클루에서 나오지 않았다.

토미는 입구에서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 개가 다 준비되었어요.”라고 소리쳤다.

할아버지가 희미한 음성으로 “토미야, 이리 오너라.”고 대답하셨다.

토미는 다시 이글루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할아버지는 그의 소지품을 앞에 두고 벽에 기대 앉아 계셨다. 그는 손으로 가슴을 문지르고 있었다.

토미는 “할아버지, 편찮으세요?”라고 속삭였다.

유타크는 토미에게 좀더 가까이 오라는 신호를 했다. “토미, 여기에 나를 버려 두고 가야 한다. 나는 병든 노인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병자를 다루는 옛날 방식이다.”

토미는 “버려 두고 갈 수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시잖아요.”라고 소리쳤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머리를 흔들었다. “아드조나마트(인생은 그런거야). 이제 내 말대로 해! 나를 여기에 버려 뒀. 썰매를 갖고 부모에게 돌아가기라…… 그

러나 옛날 방식을 잊지 말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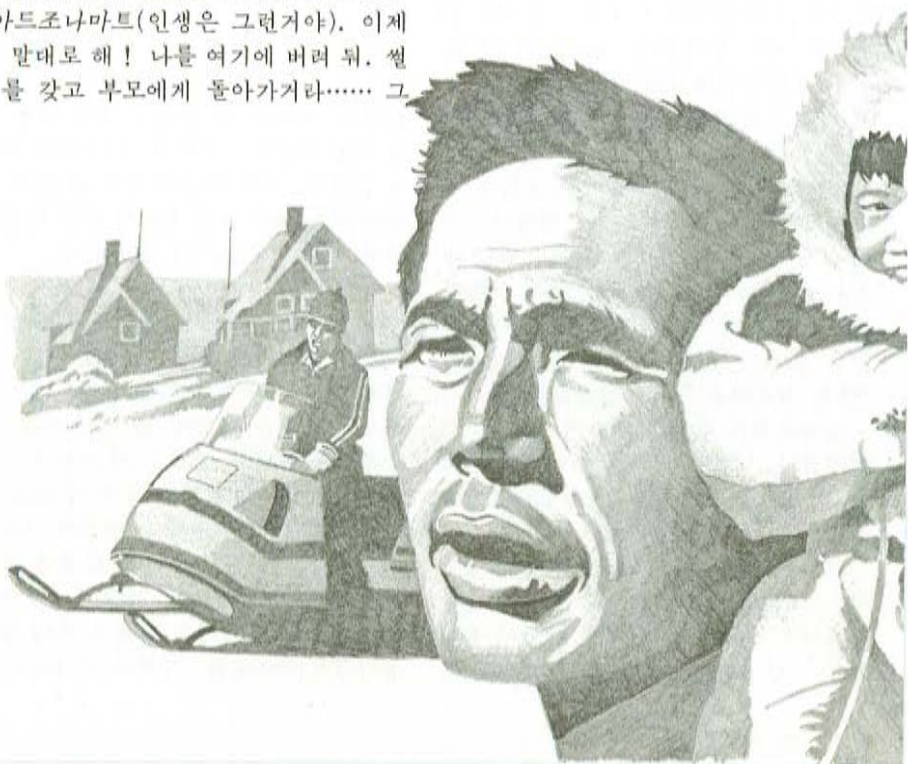
토미는 “할아버지를 버리고 가지 않겠어요. 저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고 할아버지 말고는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라고 대답했다.

토미는 급히 밖으로 나가 썰매에서 넓직한 고래 뼈를 꺼내 이글루로 갖고 들어갔다.

“자, 할아버지, 도와 드리겠어요.”

토미는 유타크가 고래 뼈로 올라가는 것을 돕고 할아버지를 썰매로 끌고 갔다. 유타크는 천천히 썰매로 기어 올라갔으며 토미는 그를 곁가죽으로 싸 드렸다. 그리고 토미는 그들의 몇 가지 소지품을 싸고는 개들을 짐을 향하여 돌렸다. 할아버지는 잠이 드셨다.

개들은 유타크가 그들을 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으르렁거리며 썰매를 끌지 않았다. 마침내 토미는 무거운 채찍을



들어 올리고는 할아버지가 이전에 그렇게 많이 했던 것처럼 개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얼어 붙은 아침 공기 속으로 채찍이 날카롭게 웅하는 소리를 내었다. 대장개가 한 번 더 으르렁거리고는 썰매를 끌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 주인이 생겼으나 그는 그들의 옛 주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 것이다.

얼어 붙은 툰드라로 썰매는 할아버지의 인도를 받지 않고 1킬로미터씩 1킬로미터씩 되돌아왔다. 그렇지만 그 소년은 자기가 배운 것을 모두 기억했으며 썰매를 똑바로 몰았다. 그들은 그날 밤 늦게 집에 도착했다.

다음날 아침 유타크는 흰 시이트가 덮인 병원 침대에서 잠이 깨었다. 창문에는 커튼이 있었다. 간호원이 그에게 몸을 숙이고 있었다.

간호원은 “티파나씨, 손자께서 생명을 구해 주셨어요. 그를 보고 싶으세요?”

라고 미소를 지며 물었다.

유타크가 고개를 끄덕이자 토미가 병실로 들어오고 그의 부모도 따라왔다. 그는 몸을 숙이고 부드럽게 할아버지를 껴안았다. 그는 “고마와요, 할아버지.”라고 속삭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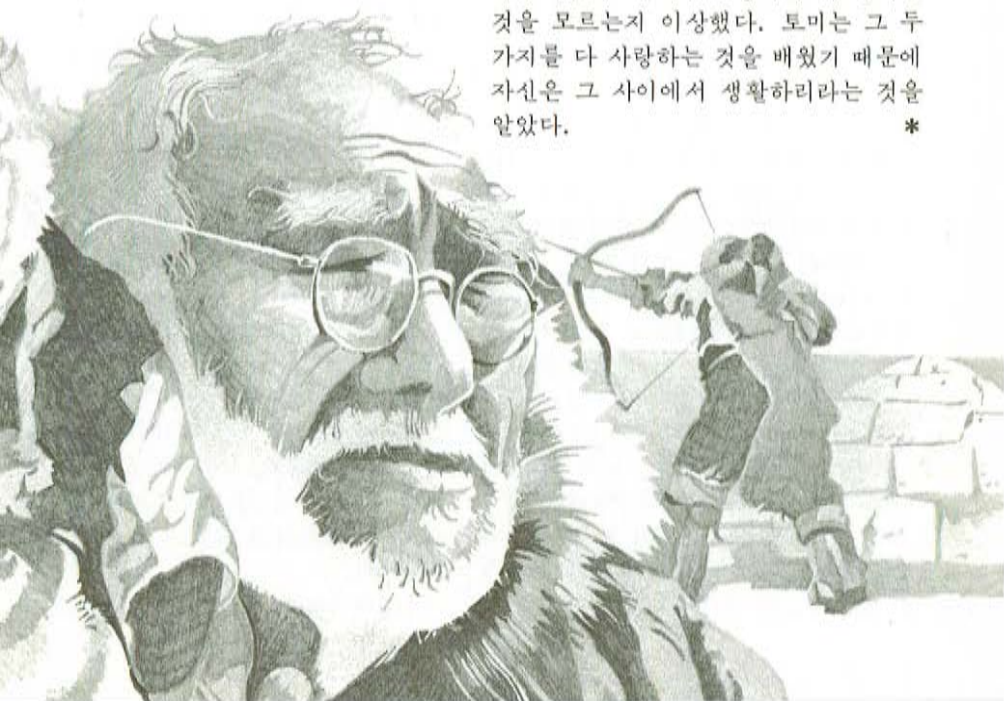
유타크는 어리둥절해서 “내가 내 생명을 구해 주고 나에게 고맙다니?”라고 말했다.

토미는 이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옛날 방식에 대해서요. 제가 옛날 방식을 몰랐다면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준 이 새로운 방식으로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지 못했을거예요.”

토미의 아버지가 얼굴을 찌푸렸다. “아버지! 옛날 방식을 버리셔야 해요. 새 방식이 더 좋고 더 안전해요.”

토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옛 방식과 새 방식에 관하여 다투시는 동안 그냥 혼자 미소짓고 있었다. 그는 왜 그들이 자기처럼 그 두 가지 방식이 다 좋다는 것을 모르는지 이상했다. 토미는 그 두 가지를 다 사랑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자신은 그 사이에서 생활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



# 노아와 방주

경전 이야기 (PBIC0358)에서 발췌  
(이 이야기는 모세서 8장, 창세기 6~9장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아주 사악했던 때 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난폭하고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끔찍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노아는 주변에 사악함이 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인 므두셀라에게서 신권을 성임받았고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가르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이 항상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아니니,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들에게 홍수를 보내리라.” 노아는 사람들이 사악하다고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홍수가 나서 멸망당하리라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가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친척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겨 두라. 믿고 죄를 회개하여 우리 조상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여 성신을 받아 모든 것이 너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리니. 만일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면 홍수가 너희에게 임하리라.”

백 년 동안이나 노아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노아를 비웃으며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사악해져 갔습니다. 당시 그 땅에는 거인이 있었는데 저들은 노아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권능이 노아에게 임하셨으므로 그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지상에는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단지 여덟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그의 아들들(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들이 바로 그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보라, 나는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리라.”

주님께서서는 수년에 걸쳐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충실한 예언자인 노아를 통해 그들에게 경고했지만, 이제 회개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지시하셨





입니다. “너는 전나무로 배 한 척을 짓되 배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배의 길이는 삼백 규빗, 나비는 오십 규빗, 그리고 높이는 삼십 규빗으로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배 안을 삼층으로 내고 물이 새지 않도록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배를 건조하는 것은 비록 엄청난 일이었지만 노아는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의심하지 않았읍니다. 그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배를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건조하는 데 오랜 시일이 걸리자, 노아의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은 기대한

배를 근처에 물도 하나도 없는 마른 땅에서 건조하는 것을 보고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을 해도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완전히 믿었으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에만 힘을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배가 완성되었습니다. 배는 길이가 약 172미터, 폭이 29미터, 그리고 높이는 17미터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노아로 인하여 흠족해 하셨습니다. 그분은 노아에게 당시의 율법에 따라 정해진 정결한 새와 짐승을 각각 암수 일곱씩을 배에 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도 각각 암수 둘씩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노아에게 칠 일 후에 비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지체없이 짐승들과 새들과 곤충들을 배에 실었습니다. 노아는 또한 그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이 먹을 양식을 충분히 준비해 두라는 주님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칠 일 후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배 안에 들어가자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홍수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땅을 뒤덮었고 배는 땅에서 떠돌았습니다. 금방 물이 불어나서 높은 산조차도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그러자 새나 짐승이나 들짐승이나 벌레나 사람,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생물이 죽고 말았습니다.

40일 간 비가 내린 후에 땅에 물이 150일 동안이나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서는 땅 위로 바람이 불게 하시니 물이 점점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낮아지자 배는 아라랏 산 위에 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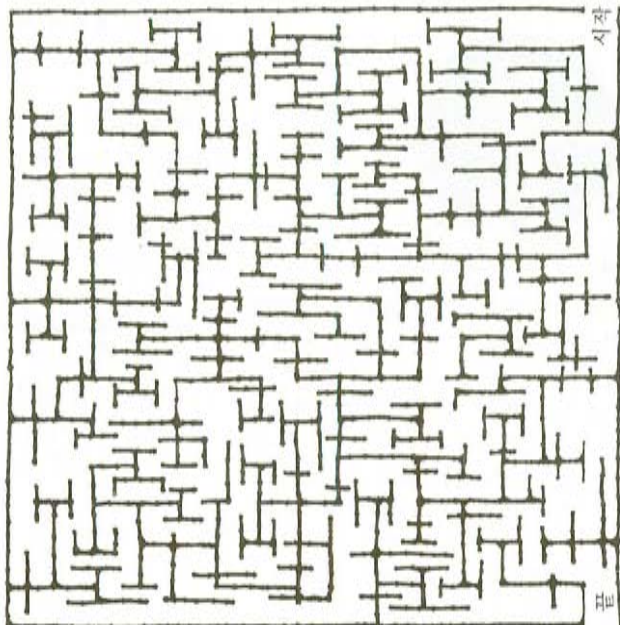
무르게 되었습니다. 그후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속에서 반년 이상을 지냈습니다. 두 달이 더 지나자 주위에 있는 산봉우리들이 보였습니다. 40일 뒤에 노아는 방주의 창을 열고 비둘기를 날려 보냈습니다. 물이 아직 대부분의 땅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비둘기는 앉을 장소를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칠 일을 더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부리에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노아는 땅에서 물이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칠 일을 더 기다린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는 새로 깨끗한 땅에서 살 곳을 찾았던 것입니다.

거의 일년을 방주에서 보낸 노아는 문을 열고 땅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모든 짐승들이 방주에서 나가도 될 만큼 땅이 충분히 말랐다고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까지 거의 두 달을 더 기다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감사를 드리기 위해 노아는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주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런 성스러운 방법으로 노아는 그와 그의 가족을 구해 주시고 지상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해 노아는 다시는 홍수로 지구가 멸망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노아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노아에게 다시는 온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성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후로 무지개는 그러한 성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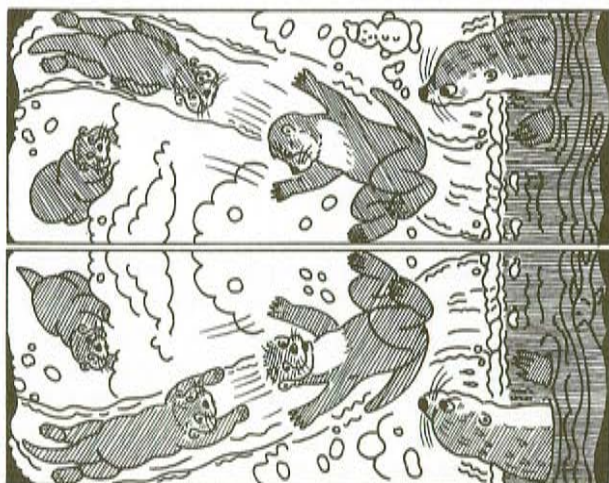
## 십자로 미궁

리차드 라타



## 수달의 거울

오른쪽 그림은 왼쪽 그림이 거울에 비친 것이지만 꼭 맞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최소한 5개는 찾을 수 있습니까?



로버타 엘 페어틀

## 제43, 44기 한국 선교사 훈련원 수료생

한국 선교사 훈련원은 제43기 3명을 포함하여 제44기 9명의 선교사들에게 소기의 훈련을 마쳤다.

7월 20일 훈련을 마친 선교사들 중 4명의 선교사들은 신당 와드 출신이다.

다음은 12명의 선교사 명단이며 괄호 안은 출신 와드와 지부의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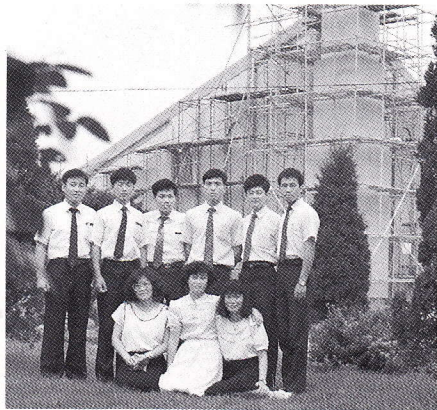
### 제43기-3명

김 용구 장로(강서, 영등포 지부)  
허 희 장로(영동, 성남 중앙 지부)  
민 경선 장로(청주, 선화 와드)

### 제44기-9명

유 병석 장로(서울, 신당 와드)  
서 정희 장로(서울 동, 도봉 와드)  
강 경오 장로(서울, 신당 와드)  
한 은수 장로(서울, 신당 와드)  
황 재식 장로(전주, 동전주 지부)  
강 형래 장로(서울 북, 신촌 와드)  
차 영조 자매(서울 북, 불광 와드)  
양 금주 자매(서울 동, 상계2와드)  
박 은경 자매(서울, 신당 와드) \*

전국 중의 서울 신전을 위해 두고 함께 모인 제44기 수료생 일동



## 서울 강서 스테이크 대회



서울 강서 스테이크는 1984년도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를 6월 16일과 17일 양일간에 노량진 와드에서 가졌다.

토요일 신권 역원회는 오후 5시부터 이 호남 장로의 감리하에 강서 스테이크와 서 스테이크의 신권 지도자들이 합동으로 모임을 진행하였다.

강서 스테이크는 지난 1982년 11월에 서 스테이크에서 분리된 후 18개월만에 자리를 함께 하여 뜻깊은 역원회가 되었다. 강서·서 스테이크에 모인 190여 명의 신권 역원들은 이 모임을 통하여 이 호남 장로의 영적인 말씀과 “개인 및 가족의 자립심”을 기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들었으며 이 광정 형제로부터 “자립과 복지”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

17일 오후 2시부터 이 도환 스테이크 부장이 감리하는 가운데 열린 일반 총회에서는 이 영복 부천 지부장이 자신의 개종 이야기와 간증을 전해 주었으며 김 차봉 서신학 연구원장과 이 도환 스테이크 부장의 말씀이 있었다.

이 도환 부장은 “가정의 강화”라는 주제로 말씀하는 가운데 특히 가정은 문명의 초석이며 자유와 책임은 가정에서 가르쳐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